

인권도시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의 약속

Human Rights Cities

Civic Engagement for Societal Development

Stephen P. Marks 외 공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서문 : Anna Kajumulo Tibaijuka
전문 : Shulamith Koenig

 UN HABITAT

유엔 인간거주지회의



인권교육을 위한 시민운동

인권도시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의 약속

Human Rights Cities

Civic Engagement for Societal Development

Stephen P. Marks 외 공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서문 : Anna Kajumulo Tibaijuka
전문 : Shulamith Koenig

 UN HABITAT

유엔 인간거주지회의



PDHRE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LEARNING

인권교육을 위한 시민운동

인 쇄 일 2011년 12월
발 행 일 2011년 12월
발 간 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로6
금세기 빌딩(을지로1가 16)
번 역 이승미
번 역 지 원 박초롱, 이주에, 이희권
전 문 감 수 배유리, 김면순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07-01
인 쇄 리드릭(02)2269-1919

| 목 차

전문	7
Dr. ANNA KAJUMULO TIBAIJUKA	
서문	9
SHULAMITH KOENIG	
도입	17
STEPHEN P. MARKS & KATHLEEN A. MODROWSKI	
제1장	
전 지구적 의제로서 도시의 상황	21
제2장	
인권도시란 무엇인가?	37
제3장	
각 국가의 인권도시 사례 경험	48
A. 아프리카의 인권도시	51
1. 가나	51
2. 케냐	59
3. 르완다	65
4. 말리	71
B. 유럽의 인권도시	81
1. 오스트리아	82
2. 보스니아-헤르제코비나	88

C. 라틴 아메리카의 인권도시	92
1. 아르헨티나	92
2. 브라질	103
D. 북미의 인권도시	107
1. 캐나다	108
2. 미국	116
E. 세계 전역의 인권도시	119

제4장

향후 추진방향	121
----------------------	------------

저자 소개	126
--------------------	------------

“도시는 ... 한 공동체의 권력과 문화가 최대한
집중되는 지점이다.”

L. Mumford

전 문

Dr. ANNA KAJUMULO TIBAIJUKA

유엔 사무차장 겸 유엔 인간정주계획(UN-HABITAT) 사무총장

이 책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생활방식으로서의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하며 의미있는 도시개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저서이다.

이 책의 저자인 막스(Marks) 교수님, 모드로프스키(Modrowski) 교수님, 리켄(Lichem) 대사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인권도시 프로그램을 시작한 쉘라미쓰 쾨니히(Shulamith Koenig)씨와 이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서 자신들의 인권도시를 생생하게 설명해 준 모든 저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 저자들은 자신들의 지역활동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의 삶과 존엄성을 향상시키는 인권도시의 생생한 선례가 되었는지 매우 잘 설명하고 있다.

인권도시를 계획하면서 추구했던 접근방식은 도시개발에서 통합적 도시관리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유엔 인간정주계획(UN-HABITAT)의 전략을 보완하는 것이다. 저는 총론의 개요 부분에서 UN-HABITAT의 주요한 보고서를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기타 유엔 자료들을 참고했다. 이는 유엔체제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개발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관건이 되는지 보여준다.

1996년 이스탄불에서 채택된 유엔 인간정주계획 아젠다(Habitat Agenda)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진전과 모든 이들을 위한 주거는 총체적인 인권프레임워크(human rights framework)안에서 맺은 폭넓은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확신을 반영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인간정주계획 아젠다에서는 지자체, 여성, 청소년, 국회의원,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등의 전체 협력자들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있는 사람들의 기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정주계획 아젠다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초안을 잡은 통합된 문서의 형식이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29가지의 인권 관련 문헌과 19가지의 시민사회 관련 문헌을 참조하고 있다.

이 책에는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등과 같은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관계를 넓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한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시험적이거나 시범사업은 중점이 한정되기 때문에 도시빈곤의 감소를 위한 협력관계에서 얻는 이익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세계적·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서만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다. 도시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지원의 80%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민간부문의 전적인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내 견해로는 유엔이야말로 인권에 기초한 접근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협력관계를 창출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유엔의 창설시기부터 보여주고 있다.

인권도시 프로그램은 이러한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세계적 파트너십 창출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감행돼야 한다.

서 문

Sulamith Koenig

2003년 유엔 인권상 수상자

PDHRE(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Learning)

초대 회장

너의 손에 - 꿈의 실현이 달려 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에 기초한 항해에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한 것을 환영한다. 이 여정은 공동체가 자신들의 생활양식으로 인권에 대해 배우고, 혁신적이고 활기찬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류의 미래 비전의 하나로서 인권도시를 향한 것이다.

도시란 세상의 축소판이다. 그 곳은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인간성에 관한 다양한 이슈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고통스럽고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이다. 60년 전 모든 국가들은 공포로부터 해방과 결핍으로부터 자유라는 난제에 대한 해결책 하나로서 총체적 인권프레임워크(human rights framework) 라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인권프레임워크는 공동체에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도덕적, 정치적, 법적 지원체계를 제공한다. 인권프레임워크는 그들이 어디에 살던,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문화, 중

교, 역사 혹은 정체성이 무엇이던 상관없이 적용된다. 굴욕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존엄성을 가지고 그들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 차별 없는 평등한 그들의 삶을 결정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자선으로부터 존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전체로서의 인권체계가 제시한 비전이다.

실제로 수천 년 동안의 희망과 기대에 답하는 그 위대한 약속,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그 꿈은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인권도시의 시작은 지역사회의 학습공동체 구성과 관련이 있다. 인권도시는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그에 관련된 문제들이 바로 인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도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권도시를 향한 야심찬 향해는 사회·경제적 정의에 관심 있는 지역 조직과 집단이 시작했으며, 총체적 인권프레임워크의 규범과 기준, 지식을 지침으로 하여 목표를 계획하고 다시 가다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11년 전 이 대담한 구상은 내가 참가했던 국제회의에서 의견을 공유했던 수잔나 채리오티(Susana Chariotti)가 아르헨티나 로사리오(Rosario)에서 시도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그녀는 나에게 열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전화하여, 로사리오(Rosario)가 세계 최초의 인권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뉴욕에서 로사리오로 가서 로사리오 시장의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했다. 지역NGO와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120명이 성명서에 서명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나는 토바(Toba)공동체 대표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백만 인구의 지역사회에서 십만 명의 토착민 집단인 토바공동체를 대표하는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었는데, 이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이 도시의 일부라고 느끼지 못했던 토바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명했다. 큰 성취감을 가지고 수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던 수잔나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술라, 당신은 꿈을 갖고, 나는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권학습의 가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행동계획을 공약했던 로사리오와 다른 도시들은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요구했다.

그들의 성취는 본 책자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듯이, 인권에 관한 담론과 학습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우리 기관인 국제인권교육시민운동(PDHRE :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Learning)이 영광스럽게도 지난 20년 동안의 인권도시를 향한 이번 여행에 그들과 함께 첫 발걸음을 떼게 되었다.

나는 운 좋게도 집단적 인권 담론과 인권학습 향해를 시작한 이들 도시와 마을, 혹은 공동체와 함께 했다. 깨어 있는 순간마다, 그리고 실현할 수 없는 꿈속에서, 인권을 호흡하고 살리기 위해 투쟁하고 있기에,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건 억압받는 사람이건, 모든 구성원이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고 인식하는 진정한 시민의식을 위한 실용모형을 창출했다.

PDHRE는 1989년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 인권교육의 힘에 대한 깊은 믿음에 기반하여, 1989년 국제서비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우리는 인권교육이 생활양식으로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전 세계 60여개의 국가에 있는 유사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직·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남녀 모두가 자신의 삶을 재설계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발견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인권에 관해 배운 사항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희망의 원리를 제공해 주었다. 인권공동체 실천을 내재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의미있는 변화를 향한 더 넓어진 공간, 그리고 선택, 가능성을 창출하는 실천들에 의해 지역 공동체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되고 있다.

모든 시민이 두려움과 빈곤을 극복하고 선심이 아닌 인권의 실현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과 식량, 깨끗한 물, 주거, 교육, 보건과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에 접근성을 보장받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공유하는 사회를 건설하겠노라고 맹세하는 그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것이 바로 활기 찬 공간으로서의 인권도시가 하는 일이며, 그것은 그러한 도시에서 사는 것이 가능한 일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많은 기관들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업을 진행시키며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풍부한 경험을 쌓으면서 우리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생각에 총체적 인권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실용적인 가치를 확신하게 되었다.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면서 그들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 과정에서 남녀 시민들은 깨끗한 물, 교육, 식량, 고용 등의 결핍이라는 밖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빈곤, 가부장제, 권력 등 좀 더 큰 쟁점 내에 있는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사고로 발전시켰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지역사회가 전체로서의 인권프레임워크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세계인구의 절반이 25세 이하의 사람들이며, 이들 중 많은 젊은이들, 대개 교육받지 못하고 미취업 상태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찾하고자 2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이주했다. 비극적이지만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도시로 팔려오는 인신매매 대상이 되고 있다. 세상은 이동하고 있고 그 이동의 방향은 도시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이주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전쟁, 내란, 기후변화, 경제적 소득, 교육,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이 그것이다. 이런 엄청난 도전은 시민과 지방 관련 당국 양자의 참여에 의해 시민의 삶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가진 행동을 이끌어내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계획을 요구한다. 인류의 역사적 기억, 담화, 이상과 희망에 구축된 인권프레임워크에 대한 계획에 기반하여, 이것은 인종, 성, 성적 지향, 언어, 종교, 출신, 재산 그리고 출생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미래를 목표로 한다.

앞으로 나올 내용은 인권이 진정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행동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지구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빈곤과 박탈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을 배우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개발해야 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인권도시는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권기구에 기반한다.

우리는 “결핍이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말과 “우리는 인권문화를 정착해야 하는 긴급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에 영감을 받았다. 만델라는 또 “정부의 정책이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그리고 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라고 말했다.

1948년 유엔이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국가를 위한” 이라고 선언했지만,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적인 인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규칙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 사회적 책임과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 사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인권의 규칙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수 백 만의 형제 자매들이 가치 있다고 여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잠재력이 굴욕의 악순환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있으며, 이는 생존을 담보로 평등성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실수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사람들이 인권을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했을 때, 그 숨겨진 잠재력이 발휘되어 부정의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 서광을 비춰 줄 것이다.

획득된 지식은 포괄적인 인권 아젠다에서 정의된 인간성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부정의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두 개의 인권규약(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종, 고문, 여성차별, 아동, 이주민, 장애인의 권리 등 주요한 유엔 인권조약의 의미와 관련성을 알게 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조약들을 비준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이 비준한 조항들이 의무로써 실행될 수 있도록 국내의 법과 관습을 수정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많은 일반시민들은 그들의 정부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동의했는지, 그리고 그 의무사항들을 준수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는지 모른다. 우리들의 요구는 사회변화와 모든 이의 존엄성을 이끌어 낼 인권학습과 대화를 통해 무지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잡는 것이다.

총체적 인권프레임워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게 하고 사회에 만연한 존엄성의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권을 알고 소유하고 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믿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인권을 가져오는 민주주의를 개발하기 위해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요구한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며, 동물들조차도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공동체에서 존엄성을 가진 존재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성, 아동, 노동, 주택, 식량, 건강, 교육, 빈곤, 종교 등의 이슈에 초점을 둔 도시의 시민사회집단이 인권의 불가분성과 포괄성이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협력과 연대를 기할 수 있는 공동의 기반을 발견하게 된다. 개발과정에서 적은 자원으로 함께 얻은 모든 이익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대안 예산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인권도시 거주자들은 그들의 단체와 이웃대표를 통해 존엄과 자유를 서로 인정하는 활기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게 된다. 그들은 “수치심과 비난” 으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의 약속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실제로 인권이야말로 험난한 도시환경에서 차별력과 협력과 협동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유일한 보편적 지원체계인 것이다.

유엔총회는 베냉(Benin)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2009년을 “세계인권학습의 해”로 선언했다. 그리고 그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간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여성과 남성, 그리고 어린이는 자신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자각해야 하며, 인권학습은 세계인권선언의 전체적인 비전을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유엔총회는 세계인권학습의 해가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건설적인 세계적 대화와 협력에 의거하여, 모든 인권, 즉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강화할 목적으로 인권학습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을 결의했다.

인권도시는 인권침해를 막고 인권 실현을 증진하는데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연구, 평가하고 분석하는 지역적 연구를 실행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수직적인 관계, 법, 정책, 자원들이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수평적 관계로 옮겨가면서 각자가 멘토와 감시자가 돼야 한다. 그리고 세계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왔던 것에 영감을 받아, PDHRE는 계속해서 인권도시 설립을 촉진시켰으며, 새로운 인권도시들은 기존의 인권도시에 뒤지지 않을 만큼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그들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도시들이 점점 증가할 것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적어도 하나의 인권도시를 가질 것을 희망한다. 인권도시는 등대처럼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분산하기도 하면서 삶의 한 방식으로 인권학습을 촉진시키는 공동체이며, 총체적 인권프레임워크가 이끄는 사회와 21세기 인류 유산의 모든 부문들을 축복하는 장소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험들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들이 살아있는 실체가 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로사리오와 토바 원주민 사회의 삶의 변화를 돌아보자.

공동체에서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를 배우고 인권을 발견할 노력으로 이 지역사회의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들은 - 비록 이들이 주저하며 필요없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 시장을 만나기로 다짐했다. 그들은 학교의 닫히고 깨진 많은 창문들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요청은 수락되었고, 이틀 만에 모든 창문들이 교체되었다. 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인권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은 믿음과 존중의 선물을 받았다. 학생들은 그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식했다. 그들은 새롭게 바뀐 공동체의 멘토와 감시자(Monitor)가 되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인권을 배우는 과정에서 토바 원주민 대표가 세계인권선언에 영감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존엄과 신뢰, 그리고 존중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하는 10개의 중심 사

안이 담긴 문서를 작성했다. 긴 토의 끝에 그들은 첫 번째 사안을 내놓았다. 즉,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로사리오 쇼핑몰에서 도둑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구매하길 원한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아픔과 희망이 이 몇 개의 단어에 다 녹아있다. 실제로 존엄을 지키고 차별 없이 살고자 하는 그들은 인권을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것에 녹아들어 있는 삶의 방식으로 여겼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다!

서론

Stephen P. Marks

Kathleen A. Modrowski

2008년 11월 3일~7일에 중국 난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에는 모든 정부, 다자간 기구,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회의는 도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 및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의 제7조의 세부목표 11, 즉 도시빈민층 거주지 보장의 안전성의 핵심 가치들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국제시스템의 노력이 그 목표 시점인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도시빈민지역 거주자의 삶을 개선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물에 대한 접근, 위생, 안전 보장, 그리고 적절한 주거공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2020년까지 15억 빈민층 거주자의 삶에 대한 예측은 빛나갈 것이어서 혁신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은 도시 빈곤의 보다 광의적이면서도 협의적 차원을 다루는 하나의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인권도시 프로그램은 도시 빈민층을 시장퇴출로부터 보호하고 저소득층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 등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보다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권한 부여(empowerment)를 통해 적절한 주거권, 주거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권리, 기본적인 도시서비스, 즉 교통, 이동, 금융서비스, 신용 등에 접근할 권리, 여성의 권한 부여, 도시의 시민의

식, 수입 그리고 생활비 등을 포함하는 그들의 인권 존중을 보장하는 수단과 방법을 집단적으로 찾기 위한 보다 폭넓은 전략이다. 그래서 이는 법적 지위의 보장보다 폭넓은 전략이다.

인권도시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의 요구와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박탈의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자신들의 미래에 책임을 지도록 격려하고 그러한 이해에 기반하여 행동할 것을 장려한다. 활기찬 시민사회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가 있는 곳에서는 인권공동체가 빈곤과 사회적 병폐를 극복해내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강화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권도시 프로그램이 가지는 또 다른 가치는, 지역공동체의 노력들이 국가와 국제사회가 인권에 헌신하도록 하는 채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비효율적이고 부패하거나 아예 없는 사회와 자신의 가족이나 파벌 외에는 동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사회에서는, 인권도시의 기획이 인식수준을 높이고, 그러한 인식이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원조나 금융개발과 같은 전통적인 전략은 “빈곤의 도시화”와 도시 빈곤의 “여성화”의 흐름을 바꾸진 못했다. 최근 케냐와 짐바브웨의 위기는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도시 빈민의 상황으로 밀어 넣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힘에 맞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에 의존하는 것이 제한된 효과를 가지거나 아예 효과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 인권도시는 분명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인권도시는 슬럼가의 확장, 재산과 유산의 권리에서 남녀평등의 장애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배척, 그리고 도시 빈민층이 생계수단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과 같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좀 더 체계적인 노력을 권장한다. 도시빈민층 거주자가 슬럼가를 개선하고, 성평등과 사회통합과 도시인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인권도시의 특수한 전략과 공동체 권한 부여에 대한 다른 접근들과의 차이점은 인권의 전 체계와 어떻게 관련되는 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과 도시민의 권한 부여가 도시빈민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빈민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체제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기술과 숙명론에 대한 대안

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결과물들 중 한 전략은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적·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의 적용이다.

밀레니엄개발목표 제7조의 세부목표 11을 실행할 UN-HABITAT의 전략이, 거주권과 거주지 안전을 증진시키고, 도시 빈민층을 위한 적절한 주택의 임대, 성평등, 도시사회의 통합성, 도시 빈곤의 감소와 도시 생계수단을 위한 최선의 실천과 훌륭한 정책, 즉 친빈민층이고 통합적이고 성평등적 실천과 정책을 강조할 때 인권도시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다. 이는 도시 빈곤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의 단순한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행동에 이러한 실천과 정책들의 기초를 세움으로써 미래에 약속을 보여준 작은 규모의 기획으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전 캐나다 주재 오스트리아 외교관이자 PDHRE 이사회 위원인 월터 리켄(Walther Lichem)은 제1장 “전지구적 의제로서의 도시적 상황(Urban Context of the Global Agenda)”을 집필했다. 그는 인권도시를 밀레니엄개발목표와 도시빈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과 같은 국제적인 관심의 맥락에서 해석했다. 그는 우선순위의 이슈를 다루기 위해 유엔과 유럽기관의 중심부에서 일한 국제 외교의 오랜 경력이 주는 통찰에 의존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현실들을 다루기 위한 전략으로서 인권도시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다.

제2장에서 우리는 인권도시 계획의 접근법과 방법들, 그리고 그것이 인권교육과 인권학습의 더 폭넓은 목표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의 인권도시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절차들을 개관한다.

세계의 인권도시를 만들어 낸 주요 인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제3장에서는 2개의 라틴 아메리카 인권도시, 2개의 유럽 인권도시, 15개의 아프리카 인권도시, 그리고 2개의 북미 인권도시를 살펴본다. 인권도시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핵심활동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권도시를 기술할 때 가장 도움을 준 사람들이다.

인권도시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의 약속

가나 - Raymond Atuguba, Tuinese E. Amuzu

케냐 - Rose Nyawira

말리 - Mohamed El Moktar Mahamar

오스트리아 - Wolfgang Benedek

캐나다 - Satya Das, Joy Fraser, Renée Vaugeois

미국 - Jean-Louis Peta Ikamabana

아르헨티나 - Susana Chariotti

브라질 - Carlos Alberto Silveira Netto Soares

수 백 명의 시민들이 시민참여를 통해 그들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고 그에 대한 상상력과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인권도시를 살아있는 실체로 만들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도시환경에서 절망 밖에 모르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존엄과 자유가 가득한 도시환경을 다시 그려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1장

전지구적 의제로서의 도시적 상황

우리는 직면한 주요한 문제들이 새로운 전지구적 의제로 형성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의제들은 더 이상 따로 분리해서 논의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광범위한 지역별 문제들의 상호연관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서로 관련된 문제들의 모든 범위를 전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개념의 폭뿐만 아니라 관습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정부와 국제기구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서는 권한이 필요하다. 물론 도시나 마을, 이웃들의 지역적 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장에서는, 도시개발이 직면한 특수한 난제들과 관련된 전지구적 의제의 주요 특징들을 서술할 것이고, 그 의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 전략으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로 결론지을 것이다.

전지구적 의제의 전개 방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초국가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국가적 행위자(non-state actors)와 시민 개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가 간 거래라는 것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과정에서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가 된다. 이와 같이 한 개인의 다양한 역할은 전지구적 의제를 정의하는 세 가지 핵심 사상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유엔의 주요 의제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권(human rights), 인간 개발(human

development),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이다. 제도적 영향력을 갖는 최근의 정책 혁신은 명백히 국가권력보다 인간 주권을 우선하는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다. 국가에 의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출두하는 것과 같이 시민 개개인의 형사책임 또한 인정하는 개념이 바로 ‘보호할 책임’이다. 전지구적 사안들을 다루는데 이런 정책쇄신은 앞으로 논의하게 될 도시개발과도 관련이 있다.¹⁾

‘세계화’란 지역 차원의 정치·경제·문화 발전과 전지구적 차원의 발전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의존성을 일컫는다.²⁾ 글로벌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세계적이면서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수준을 포함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그 요구(challenge)는 다층적인 조정을 위한 새로운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에서의 새로운 협력구조와 역할을 명확하게 한다. 지역 민주주의 과정을 통한 시민과 공동체의 참여를 포함하는 거버넌스의 수준은 평화와 안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사회 결집, 좋은 관리구조(good governance) 등으로 정의되는 전지구적 의제에 일정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세계화의 측면과 인간개발 및 경제개발 측면 간의 호혜관계를 적절히 중재할 수 있는 단위가 바로 도시이다. 이 전지구적 의제의 이슈를 언급할 때 도시 수준의 지역의 힘은 국가적·국제적 정책 프레임워크 내에서 인식되고 있다. 이제 도시 단위에서 시민 개개인과 사회가 연결된 양상과 함께 환경과 자연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대간의 책무가 되면서 세계적 안건의 이슈에 대한 지역 및 도시 수준의 잠재력은 국가정책은 물론 국가정책 틀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사안이 되었다.

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DRC, Ottawa, 2001; 2005 World Summit Outcome, par. 138-140, UN Doc. A/RES/60/1, 24 October 2005.

2) Cities in A Globalizing World: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2001, UN-HABITAT, New York, p. xxxiii. 참조

도시 성장

2007년 개정된 〈세계 도시화 전망〉에 의하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25억이 더 늘어나, 67억을 넘어 92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³⁾ 그러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007년의 33억 명에서 2050년에는 64억 명으로, 31억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2008년에는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도시(저자가 다루고 있는 관련 도시)가 전지구적 안건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인구증가는 도시 팽창의 60% 이상 혹은 그 이상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는 도시 지역의 인구를 분산시켜 2050년까지 국가 전 지역의 평균 인구가 지금의 67%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화는 우리 안건의 주요 목적이 되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제 및 안보와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인구성장의 함의는 앞으로 도시의 맥락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경제 발전

중세시대 이래로 도시의 발전은 경제·사회·문화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도시화와 경제 발전은 서로 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⁴⁾ 오늘날 도시는 경제적인 세계화와 정면으로 맞서기도 하면서 또한 경제 발전의 주요한 기반을 구성하기도 한다. 해외직접투자와 정보통신기술산업은 모두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공업단지의 설립과 생산 역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도시단위에서 경제 발전은 지역정부의 세입과 재정에 정비례하며, 생산성과 경쟁력의 상승을 유발한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도시 발전이 국가 수입 증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국가에서 도시라는 단위는 GDP의 불균

3)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07 Revision, UN Doc. ESA/P/WP/205, February 2008, p. 1.

4) UN-HABITAT, The State of the World's Cities 2004/2005. Globalization and Urban Culture, London: EARTHSCAN, 2004.

형을 초래하기도 하며 투자와 고용에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도시 기반의 경제활동은 저소득 국가에서 GDP의 최대 55%, 중간수준 소득 국가에서 73%, 그리고 고소득 국가에서 최대 85%를 차지한다.⁵⁾ 이러한 경우는 도시기반과 세계시장의 강화된 결합이 도시를 경제 발전의 심장부로 삼는 세계화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빈곤의 도시화

〈세계도시현황 2006/2007〉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도시빈민가의 인구가 약 14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⁶⁾ 빈곤은 도시빈민가와 기아, 위생과 건강, 교육과 고용 같은 다층적 차원에서 도시가 직면한 문제가 되고 있다. 비록 오늘날 대부분의 빈곤층이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도시화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미 농촌지역보다 두 배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35년이 되면 도시의 빈곤층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가 맞닥뜨린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간주된다.

밀레니엄개발목표는 유엔에서 개최했던 밀레니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과 사회발전을 통해 각국 정부와 유엔이 함께 빈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밀레니엄개발목표는 도시를 포함한 지역적 수준의 조치를 요구한다. 이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 건강의 개선, 에이즈(HIV/AIDS)와 말라리아 등 질병과의 전쟁을 포함하며, 이는 2020년까지 목표로 정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안전한 식수 및 기본적 위생에 접근 가능하지 않는 사람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 빈민가 거주자들 중 최소한 1억 명의 생활수준을 향상시

5) UN-HABITAT, The State of the World's Cities 2006/200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Urban Sustainability: 20 Years of Shaping the Habitat Agenda, London: EARTHSCAN, 2006.

6) 1) 상동

키는 것을 의미한다.⁷⁾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에이즈의 확산과 위험성이 도시 단위에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회 역시 지방보다 도시가 더 많다.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질병이나 결핵과 같이 에이즈의 발병과 전염율을 높이는 질병 역시 도시 지역에서 더 만연한다. 도시의 빈곤층 역시 지방의 빈곤층과 마찬가지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인해 성인이 채 되지 못하고 죽는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폐렴과 설사로 인해 매년 2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다.

교육은 발전과 세계화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도시 빈민지역에는 초등학교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1억 1천 3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있고, 1억 3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문맹으로 자란다. 그러므로 도시는 새롭고 광범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래야만 한다.

환경 문제

유엔의 지구환경 의제는 전지구적 환경 변화가 각 지역(국가)의 공기·수질·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각 지역(국가)에서 인간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도시단위 자체가 종종 대기와 물의 오염, 기후 변화,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과 소비 패턴, 수자원 관리와 물 공급, 오염된 공업단지 및 자연재해를 포함한 토지 오염 등을 유발하곤 한다.

‘도시의 흔적(urban footprint)’은 도시의 경계를 훨씬 넘어 있다. 도시 생활자는 도시의 면적보다 더 넓은 자연환경의 개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도시 공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가장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 유발되는 해수면 상승은 해안선 근처에 형성된 도시집중화에 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7) United Nation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7, UN-DESA, New York, June 2007. Available at www.millenniumcampaign.org.

도시지역에 인구와 인프라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5년간 재해는 세계적으로 연 428건에서 707건으로 증가했다. 빈곤층의 건물이나 도로는 지진, 산사태, 홍수에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들은 재해에 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75%는 적어도 한번 이상 지진, 열대성 태풍, 홍수, 가뭄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살고 있다. 자연재해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개발도상국에서 평균 7배 이상의 인명 피해를 가져온다. 특별히 도시가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 지 인식하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난제

21세기 전지구적 의제 중 눈에 두드러진 것으로서, 도시개발의 가장 어려운 난제는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인데, 이로 인해 사회적 복잡성과 결합된 사회제도의 불안정과 잠재적 사회 붕괴를 야기시켰다.⁸⁾ 도시개발의 진행은 사회의 역동성에 의존하며, 사회역동성은 도시사회의 참여적 정치와 다양한 정체성의 인정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문화와 가치를 보존하는 대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2004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오늘날의 다양한 세계의 문화적 자유’라는 주제에 맞닿아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불만에 찬 원주민부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불행한 소수 민족까지, 그리고 선진국으로 건너 온 새로운 이민자들까지, 이들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단지 불의를 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장차 실제적인 문제, 즉 실업, 불만에 가득한 청소년, 현 상황에 대한 분노와 때로는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요구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⁹⁾

8) Jared M. Diamond, Collapse: How Societies Choose to Fail or Succeed, New York: Viking books, 2005.

9)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Cultural liberty in today's diverse world, New York: UNDP, 2004.

인구 15만 명의 비교적 작은 지방 도시인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Salzburg)를 예로 들어 보자. 오늘날 이 도시에는 서로 다른 인종·문화·언어·종교적 배경을 가진 148개국의 이민자들이 살고 있다. 많은 도시공동체에서 그렇듯 사회통합과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의 한계로 인해 사회는 분열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들이 누리는 교육 수준·공공의료 서비스·사회 기반 시설에 차이가 생겼다.

안보와 관련된 안전과 안보의 민영화 추세는 여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열 양상을 반영한다. 특히 마약 밀매와 아동,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같은 조직화된 범죄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도와 강제 성매매에서의 차별과 모욕,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기관의 노력의 실패가 그렇다. 이런 사회적 병폐는 법치의 실패와 그에 따른 분리와 배제, 대립, 그리고 복수 때문에 더욱 악화된다.

사회적 발전

도시 발전의 맥락에서 ‘사회적(societal)’ 이라는 용어와 ‘사회의(social)’ 라는 용어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의(social)’ 라는 용어가 인간과 공동체의 다양한 범위의 생산적 능력(건강, 나이, 교육, 생활 여건, 고용, 기아 등)을 언급하는 것인 반면, ‘사회적(societal)’ 이라는 용어는 한 시민과 한 공동체의 관계적 능력(다양성 수용, 다름에 대한 인정, 자기 정체성과 가치 및 비전 등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 공공의 선(common good)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일컫는다. 또한 ‘사회적’ 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기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가리키며 이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암묵적인 인식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이라는 용어는 다름과 정체성의 다양함, 자신의 입장과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공공의 선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타인들과 민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인류가 서로 존엄성을 바탕으로 공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변화와 발전을 위한 능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서로 다른 사회에서 사회적 수용력은 대개는 부여된(given)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국내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국제적 담론 및 정책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최근 특히 도시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개발의 실패와 위기는 발달의 관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사회적 수용력을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환경적 지속성과 분쟁 방지와 분쟁 후 평화 구축 노력 등의 문제를 다룰 때 그러하다. 구체적인 행동은 공평함과 정의가 살아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인 학습, 사회화와 교육과정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사회적 발전은 세계시민이라는 개념과 사람들 사이의 평등함에 대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사회적 발전은 의심의 여지없이 세대를 아우르는 개념이며 장기적인 진행 과정이다. 또한 사회적 발전은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특성은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모든 사회 구조와 정부 구조의 활성화를 요구한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사회적 발전은 지역의 문화적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며,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며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발전은 유엔의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거버넌스 과정에서 적절한 제도적 인식을 구해야 한다.

시민들과 사회들은 사회화, 교육, 학습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 행동 유형 및 가치를 습득한다. 사회적 수용력에 대한 개발적 접근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 내에 그러한 과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문화와 믿음, 그리고 역사적 전통은 인간의 존엄성 및 정체성, 다원성, 사회적 통합이라는 사회적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광활한 토대를 제공한다. 유네스코의 다문화적, 다종교적 국제위원회는 1940년대 후반에 문화와 가치들 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인권을 발견했으며, 우리 문화에 기본적인 도덕성의 본질을 “인권”이라 부를 수 있다고 했다.¹⁰⁾ 평화 및 안전 의제에서 ‘사회적,’ 그리고 ‘사회의’ 차원뿐만 아니라 한 사

10) UNESCO, Human Rights: Comments and Interpretations, New York: UNESCO and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9.

회의 개발 잠재력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포괄적인 발전과정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서로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사회의 경제적 수용력이 사회적 발전이라는 개념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가이다.

평화와 안보

최근 반세기 동안 전통적인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아젠다는 국경을 넘는 국가 간의 전쟁에서 사회 내의 폭력성과 안보 부재의 문제로 바뀌었다. 최근 90% 이상의 전쟁과 분쟁은 국가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95%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었다. 이로 인해 국가 안보라는 개념은 인간 안보의 문제로 대체되었다.¹¹⁾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보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그리고 이 문제들은 실패하고 취약한 정부 및 국가 구조 속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도시의 범죄와 폭력은 국가적 공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도시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에서 비롯되는 현실이다. 소형 무기와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의 범죄는 사회적 분열 및 도시의 안보 부재와 관련이 있다. 안보 부재로 부유층은 개인보안서비스의 등장과 높은 벽과 철조망 뒤로 은신했으며, 이는 안보 부재에 대한 반응이자 이렇게 심화된 분리와 배제를 상징하는 도시의 표상이다.

도시의 안보 부재 원인 중 테러는 집중적이며 파괴적인 효과가 있다. 9·11테러는 330~360억 달러의 규모만큼 뉴욕의 사회기반시설, 건물, 일자리 및 여타의 다른 재산들을 파괴했다. 뉴욕과 워싱턴을 넘어 9·11테러가 세계적 경제에 미친 피해의 액수는 가늠할 수 있는 정도를 초월한다.¹²⁾

테러와 조직적 범죄를 비롯하여 분쟁과 폭력은 국가 내에서의 사회적 결합 뿐만

11) United Nations, A more secure world: our shared responsibility,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UN Doc. A/59/565, 29 November 2004; United Nations, Human Security Now—Protecting and empowering peopl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New York, 2003.

12) UN-HABITAT, Enhancing Urban Safety and Security: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2007, New York: UN-HABITAT, 2007, p. 80.

이 아니라 실패하는 정부 및 국가들의 존재와 활동을 위협한다. 폭력과 사회적 결합에 대한 도전은 모든 지역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특히 위협적이다. 사회적 분열은 빈곤과 저개발의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분열과 해체의 과정은 인간 안보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 이는 폭력조직, 경찰, 시민군 및 그 외의 무력 사용 집단의 군국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구조의 실패는 시민들의 인간 안보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의 분열을 조장한다. 부정부패와 사기는 조직화된 범죄를 증가시킨다. 많은 도시에서 폭력과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도시의 과도한 인구 증가 또한,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 연 인구증가율이 4%가 넘는 도시의 경우, 도시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곳에 견주어 사회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두 배 더 높다.

사회적 분열은 종종 인간 안보와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차별화와 결부된다. 도시 빈민지역의 물 공급과 위생시설, 하수처리 및 보건서비스의 부족은 전염병과 그와 관련된 사망의 위험성을 높인다. 도시 범죄와 폭력의 주요인은 빈곤 그 자체보다는 사회적 무관심이다. 범죄는 또한 부패된 혹은 취약한 거버넌스로 인해 정치적, 사법적, 시민사회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또는 파괴된 곳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¹³⁾

범죄와 사회로부터의 “경계”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고 혼란스러운 도시화가 도시 안전과 안보를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유엔 인간정주계획(이하, UN-HABITAT)에 따르면, 세계의 범죄율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100,000명당 2,300건에서 3,000건으로 증가했다.¹⁴⁾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는 지난 20년간 범죄율이 떨어진 반면, 경찰은 2001년에 34개국의 선진국에서 5천만건의 재산 및 폭력 범죄가 있었다고 기록했다. UN-HABITAT은 또한 21세기의 첫 5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도시거주민의 60%가 범

13) State of the World's Cities 2006/2007, UN-HABITAT, EARTHSCAN, New York, 2006.

14) Enhancing Urban Safety and Security: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2007, UN-HABITAT, EARTHSCAN, New York, 2007.

죄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살인 및 절도는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했다. UN-HABITAT의 보고서에서 도시의 빈곤·빈민지역이 일상적으로 범죄와 폭력의 위협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양상에 대응하여, 도시의 부유층은 자신들의 구역을 민간보안서비스, 벽, 전기 철조망 등으로 경계지었다. UN-HABITAT에 의하면, 민간보안서비스들이 1997년 이래 150%가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유층의 “경계”는 도시인구의 다르고 분리된 계층 간의 소통과 상호이해의 부족으로 점차 사회적 분리를 심화시킨다. 부유층은 “경계” 안에 머무르지만, 1억 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길거리에 있다. 이 길거리 아동의 숫자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더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보안과 공공구역의 사유화의 증가는 도시화로 인해 증가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처하는 관련 당국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을 의미한다. “경계”의 형성은 사회적 개발의 실패를 의미하는 분명한 지표이다.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법치와 부패근절과 같은 또 다른 사회개발의 핵심적 요소들이 필요하다. 조직범죄는 흔히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 마약, 무기 및 인신매매는 조직범죄의 주요 활동이다. 효과적인 법적 절차의 미비는 조직범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거버넌스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도 빼앗아간다.

사회적 화합 및 통합에 대한 도전

도시화 과정은 농촌사회의 정체성, 문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상실과 더 나아가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는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인종, 종교, 언어 및 전통 문화와 같은 정체성의 기본 요소들을 공유하는 전통적인 단일 정체성 사회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굉장히 다양한 사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회는 서로 다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정체성, 신앙, 문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은 관용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는 문화지변에서 비롯하는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농촌 지역에서의 이주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및 피난민들이 도시로 유입되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 없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버린다. 동일 민족집단에 속하는 이주민들은 이따금 스스로 자신들을 도시사회로부터 분리시켜, 자신들만의 소수민족문화권을 형성하기도 한다. 특히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이주의 경우, 그것은 모욕과 배제, 혹은 인간 존엄성의 부정으로 연결되어 폭력 및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

흔한 경우, 도시화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관계를 양산하는데, 예를 들어 이주민 내에서의 가부장적 제도 및 복종 관계가 거주사회(host society)의 수평적, 평등적, 민주적인 관계와 충돌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수평적 관계에 적응하는 것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공동체 구성의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

도시 거버넌스는 공공의 영역에서 무엇이 공공의 선인지를 정의하고 그것을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시민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도시의 지역공동체들은 점진적으로 가치의 확산, 소속과 연대의 확산, 공동된 미래를 위한 공유된 비전의 확산에 따라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도시사회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에서 수평적인 시장사회는 “패배자”가 소외감과 차별을 느끼는 경쟁적 사회이다. 소외감은 그 지역의 “승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시장경제 및 그 행위자 전체에 대하여 느끼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부유층 및 빈곤층 간의 격차는 다양한 함의를 가진 채 급속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괴리, 승자와 패자의 괴리는 특히 도시 공간에서 교육과 고용, 건강, 복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러한 도시 개발의 새로운 사회적 차원은 사회적 분열과 파편화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사실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인 실패는 폭력과 범죄가 없는 사회를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는 “더 큰 자유” 를 향한 변화 과정으로서 개발은 사회적 통합과 결속, 다양한 정체성의 인정,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고 모든 도시 거주지의 공공성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신장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용력은 도시공동체에 점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연재해의 문제를 다루거나 도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의 효과를 다루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적 공간”과 참여 거버넌스(Participatory Governance)

거버넌스(governance)는 통치(government)와 다른 의미인데, 통치가 서로 다른 수준들에서 법규를 만들고 실행하는 수직적으로 구조화된 과정을 일컫는다면, 거버넌스는 공적 공간에서 수평적 협력과정을 일컫는다. “공적 공간(public space)”이란 공공의 선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한 사회의 추상적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공적 공간은 참여적 거버넌스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곳에서 국가 및 비국가 파트너들은 공공성을 확인하고 성취하기 위한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통해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현하기 위해 협력한다.

“공적 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은 민주정치를 위한 기본적 요소이다. 공적 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은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발전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수평화 과정의 일환이다. 명령과 복종의 사회, 그리고 군부독재나 이데올로기적 독재 체제에는 “공적 공간”이 없다. 정부의 비민주적 통치자가 공공의 선에 대한 정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체제하에서 시민들의 유일한 임무는 복종하는 것이다.

도시는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완벽한 조건을 제공한다. 도시는 의사결정자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성은 물론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화된 공공의 힘과 공간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령과 복종이라는 수직적 구조로부터 변하고 있는 사회는 도시 거버넌스에서 협력을 위한 비국가 구조들 간의 거버넌스 형성의 발전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도시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와 민간부문, 학계 등의 비국가적 협력자들의

참여와 기여에 기반해야 한다. 사회적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는 민족적, 종교적 단체 및 도시의 빈곤 계층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세계 변화 및 세계 개발과 평화를 위한 지역의 책임감과 영향력을 염두에 둔다면 국가정부와 국제적 프로그램이나 목표 간의 관련성 또한 소중한 가치가 있다.

도시 거버넌스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이며 전체적인 접근은 인간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며 범죄와 폭력을 감소시키고, 경계와 배제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분절이라는 문리적 구획도 감소시킬 것이다. 그와 동시에 경제적 발전은, 사회적 발전이 경제적, 사회적 복지와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란 점을 인식할 때,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파편화되지 않은 도시사회는 부문간, 세대 간에 비용을 외부에 전가시키는 것으로부터 덜 고통받을 것이다. 민주적 거버넌스는 지속가능성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효과는 공무원의 책임감과 책무감, 그리고 가치관에도 달려있다. 부패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한 도시에서 성취한 사회적 발전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공적 기관의 책임감의 반영이다.

도시개발의 인권적 측면

2006년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을 포함하는 도시개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며 다부문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¹⁵⁾ 포럼은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인용하면서, 도시개발에서 성과 연령에 민감한 접근의 인권적 측면과 인간발달과 인권, 그리고 인간 안보의 상호연관성을 언급했다.¹⁶⁾ 밀레니엄 정상회의

15) UN-HABITAT, Report of the Third Session of the World Urban Forum, Vancouver, Canada, June 19-23, 2006, available at http://www.unhabitat.org/downloads/docs/3406_98924_WUF3-Report.pdf.

16)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UNDP, New York, 1994, dealing with the interrelatedness of human development and human security and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UNDP, New York, 2000, dealing with the key importance of human rights for the achievement of human development.

(Millenium Summit) 결과의 이행사항을 논한 2005년 정상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전지구적 의제와 점점 상호관련성이 증가하는 의제로서 ‘모두를 위한 인권’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으며, 개발과 안보의 상호관련성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다.¹⁷⁾ 개발과 안보는 서로 의존적이며, 관련된 요소들이 두 의제의 영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와 함께 “더 큰 자유” 속에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도시 차원에서 함의를 가진다. ‘세계적 도시들에서 안전상태에 관한 몬테리 국제회의(Monterre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tate of Safety in the World’s Cities)’에서, 도시 안전은 복잡한 이슈로서 “불평등과 소외화(marginalization), 빈곤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¹⁸⁾ 그와 동시에 범죄와 폭력, 그리고 법치의 부재로 분열되고 고통받고 있는 사회는 사회개발에 영향을 미칠 투자 및 경제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무너진 거버넌스는 그 환경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그 부담은 경제적 발전과 도시 안전을 가로막는다.

만약 도시개발 의제에서 사회적 차원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개발, 환경의 지속가능성 및 범죄와 부패, 그리고 사회 내의 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과 관련한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핵심 사안이라면, 인권의 위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도시공동체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

인권의 가치는 시민의 사회적 능력, 사회적 결속과 연대, 그리고 운명공동체로서의 의식 등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사실, 인권 아젠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새로운 수평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의 인권의 전통적인 법적 특성은 사람들과 공동체들 간의 사회내적 관계를 규정하는 요소로서의 인권에 의해 계속 보완되고 있다. 국제정책과 법률문서 등에 의해

17) United Nations, In larger freedom: 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59/2005 of 21 March 2005.

18) UN-HABIT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tate of safety in world cities Monterrey, 1-5 October 2007, Conference recommendations Monterrey, 5th October 2007, available at http://www.unhabitat.org/downloads/docs/5354_51059_State%20of%20Safety%20Conference%20Recommendations.pdf.

지지되는 여성운동의 성취는 최근 인권의 발달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질에 어떻게 구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가 되고 있다.

인권교육, 학습, 그리고 사회화는 사회적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다. 그것은 각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타인의 존엄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인권을 위한 효과적인 문화는 공동체의 질을 평가하는데, 인권문화는 공동체를 포괄적으로 만들며, 공동체에 공유된 목적의식과 미래 비전을 제공한다. 인권을 통한 권한 부여(empowerment)는 공적 공간을 공유하고자 하는 능력과 헌신, 그리고 거버넌스 과정에서 정부와 동반자가 되는 능력과 헌신성을 가져다준다.

교육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서 인권교육은 존엄성과 평등성, 그리고 타인의 존엄성을 자각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추상적인 지식으로 그칠 뿐이다.

학습과정은 지식을 이해로 전환시킨다. 인권학습은 개인과 공동체의 운동을 촉진시켜 각자 능력 있는 활동가가 되게 한다. 인권학습은 인권 지식을 강화하고, 비판적 이해를 발달시키며, 가치명료화를 증진하고,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며, 연대를 공고히 하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적 임무로서의 인권은 공유된 공적 공간으로 들어와야 한다. 기념물이나 거리 이름, 공휴일은 인권에 기반한 사회적 문화를 더 잘 반영해야 하며, 다른 공적, 사적 기관들과 함께 인권 관련 가치, 능력 및 행동을 사회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인권교육, 학습, 사회화는 인권문화, 즉 인권과 관련된 “삶의 방식”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한 삶의 방식은 모든 사회 혹은 사회집단과 뚜렷이 구분되는 영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징을 부여한다. 그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 신념 등의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것이다. 인권에 기반한 문화는 사회적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제2장

인권도시란 무엇인가?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도시' 라는 곳은 한 지역사회의 권력과 문화가 가장 집중되는 지점이다. 수 갈래로 흩어진 제 각각의 삶의 광선이 사회적 효율성과 의미를 획득하면서 한 초점을 향해 모이는 곳이다. 도시는 통합된 사회관계의 형태이자 상징이다. 즉, 그것은 종교사원과 시장, 법원, 학교의 자리이다. 여기, 도시는 문명의 상품들이 배가되고 다양화된다. 그리고 여기 도시에서는 인류의 경험이 가능한 기호와 상징, 행동양식, 그리고 명령 체계로 변환된다. 또한 도시에는 문명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가 집중되며, 또한 이곳에서는 때때로 의식적 행위가 완전히 상이하고 자의적인 사회의 살아있는 드라마로 나타나기도 한다. (루이스 뎀포드, Lewis Mumford)¹⁹⁾

인권도시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세계 도처의 지역사회집단이 고안하고 진행했다. 이는 참여, 권한 부여 및 사회변화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교육이나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인권도시라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장에서는 인권교육과 학습의 이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인권도시

19) Lewis Mumford, *The Culture of Cities* (1938), Introduction, from Donald L. Miller (ed.), *The Lewis Mumford Reader*, New York: Pantheon Books, 1986, pp. 104-107.

운동의 시작, 경험사례, 목적, 예상결과 및 도시 상황과의 관계에 대해 논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인권도시란 개념을 자신의 일상적 지역사회에 실행하도록 기여한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것이다.

인권, 인권교육 및 학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000년의 밀레니엄 선언에서, 각국 정부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의 증진, 법치주의 강화, 개발에의 권리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는 의지를 표명했다.²⁰⁾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에서 모든 인권의 보호와 증진, 민주주의,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소수집단, 이주민,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권리옹호,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근절, 시민들의 진정한 참여 허용,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정보접근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²¹⁾

유엔 사무총장은 〈밀레니엄선언의 이행방안〉에서 인권은 “평화, 안보 및 개발 계획의 핵심” 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²²⁾ 인권도시 사업도 마찬가지로, 인권학습을 통해 지역단계에서 개발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구축할 때, 시민사회의 참여를 권장하는 참여전략을 꾀한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세계화가 점점 상호의존적인 세계를 초래하며, 그것은 전례 없는 성장, 극심한 불평등의 증가, 실항민, 민족분쟁으로 인한 인종학살 전쟁, 대규모 인신매매, 각종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하는 국내분쟁, 무기, 테러, 도시 붕괴의 확산 및 취약 집단의 소외화 등과 같은 세계화의 난관에 대한 인식이 그 출발점이다. 이와

20)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2,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18 September 2000, para. 24.

2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2,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18 September 2000, para. 25

22) UN Doc. A/56/326, 6 September 2001, para. 82.

같은 인간개발 및 인권에 대한 위협은 뉴욕 또는 제네바에서 채택된 결의안이나 외국 자선단체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 지역 내에서 이행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원조는 지역사회가 그들 사회 내에 뿌리박고 있는 부조리를 생산하는 힘의 구조(power structure)를 교체하도록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

유엔총회가 1994년에 선포한 유엔인권교육 10년(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²³⁾에 따르면, 인권교육이란 “정보 제공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각 개발 단계와 사회의 각계 각층에 속한 모든 이들이 타인의 존엄성 존중에 대해 배우고, 그 존엄성을 보장하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종합적인 평생학습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²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50주년 기념으로 채택된 인권옹호자 선언(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에서도 정부의 인권교육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다.²⁵⁾ 이 인권옹호자 선언은 모든 수준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증진할 의무를 포함하는데, 특히 변호사, 법집행공무원, 군관계자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선언문은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다루는 인권조약의 내용을 상기시킨다. 그러한 인권조약은 국가가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해 인권증진을 꾀하고, 인권법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조항에 대해 널리 알리며, 유엔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인권위원회나 옴부즈만 등 독립적인 인권기구를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는 2008년 12월 10일 ‘세계인권교육의 해(International Year of Human Rights Learning)’의 선언으로 더욱 확실해졌다.²⁶⁾

2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9/184, 23. December 1994. The official duration of the Decade was from 1 January 1995 to 31 December 2004.

24) 위와 상동

25) 이 선언문은 공식적으로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개인과 집단, 사회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으로 알려져 있음.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44 of 9 December 1998.

26)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2/171. International Year of Human Rights Learning.

선언문은 유엔에게 “세계 각지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권문화 증진을 위해 힘 쓰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인권문화를 창출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현존하는 시민사회 중에서도 PDHRE는 십년 이상 지역사회와 함께 인권문화를 증진하고자 헌신해왔다.

인권학습의 전환적 특성

이러한 인권교육 양식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권의 전환적 교육론(transformative pedagogy)이라는 개념과 실천일 것인데, 이는 대부분의 억압적 사회를 뒷받침하는 힘의 구조를 바꾸는 잠재력이 있다. 실제로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고, 성취하기 위한 권리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문화를 구축하는데 힘쓴다면, 공적 신뢰의 남용이나 타인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 그리고 사회 취약집단에 대한 착취 등의 여지는 줄어들 것이다. 전환학습이라는 개념은 학습에 대한 “심층적 접근(deep approach)” 또는 적극적 학습과 같은 교육이론에서 잘 알려진 개념으로서 학습자가 “제시된 자료에 대해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이해하며, 학습자 자신의 사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증거를 검토하고 결론에 도달한 논리적 단계를 평가” 한다.²⁷⁾ 이는 과거의 교육자 중심인 “표면적 접근방식” 과 상반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연구한 이 심층적 접근의 활용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자 중심 접근 방식에 대한 가장 의미심장한 비판은 존 듀이(John Dewey), 알프레드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장 피아제(Jean Piaget) 그리고 칼 로저스(Carl Rogers)와 같은 거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들의 견해는 그들이 살았던 시대뿐 아니라 현재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²⁸⁾

27) Noel Entwistle, “Teaching and the Quality of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In Noel Entwistle (ed.) Educational Ideas and Practic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p. 673. 또한, F. Marton, D. J. Hounsell, and N.J. Entwistle, The Experience of Learning, Edinburgh: Scottish Academic Press, 1984.

28) David A. Garvin, “Barriers and Gateways to Learning,” in C. Roland Cristensen, David, A. Garvin, and Ann Sweet, Education for Judgment. The Artistry of Discussion Leadership,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1, p. 3.

전통적이며 적극적인 교육 방식을 활용하는 인권교육은 인권교육협회(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ion)²⁹⁾와 같은 NGO가 추진하고 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UNOHCHR)³⁰⁾가 부분적으로 채택했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또한 재생산 건강과 권리분야에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³¹⁾

PDHRE와 같은 인권학습 운동단체들은 “인권학습”의 전환교육론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장려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학습활동에 대한 연구를 출판한 바 있다.³²⁾ 또한, PDHRE는 유엔인권교육 10년 확립을 주도한 1994년 유엔의 결의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2009년도 ‘세계인권교육의 해’를 선언한 유엔결의안 62/171 채택을 위해 각국의 대표와 협력한 적 있다. 학교와 같은 교육 현장에서 이 교육론이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인권학습의 기본적인 설명은 개발에서 참여의 개념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개발전략으로서 참여학습은 인권교육자가 “교사(teacher)”가 아닌 “인권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하는 비형식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접근방식은 지역사회내의 인권실현을 제한하는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권을 다룰 때 특히 유용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권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 하도록 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에 인권의 가치를 연관시키며, 인권의 실현을 꾀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자들은 이 접근방식이 여러 가지 교육 목표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지식 증진, 비판적 이해능력의 개발, 가치의 확립, 태도 변화, 결속력 강화 및 행동

29) Frank Elbers, Human Rights Education Resourcebook,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Cambridge, MA, 2000. Available online at <http://www.hrea.org/pubs/HREresourcebook/resourcebook.pdf>.

30)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Guidelines for national plans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 doc. A/52/469/Add.1 (20 October 1997). 참조.

31) WHO, Transforming Health Systems: Gender and Rights in Reproductive Health, A Training Curriculum for Health Programme Managers, Geneva: WHO, 2001. WHO/RHR/01. 29. 참조.

32) George J. Andreopoulos and Richard Pierre Claude,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7; PDHRE, Human Rights Learning: A Peoples' Report, New York: PDHRE, 2006. 참조.

혹은 실천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³³⁾ 이 여섯 가지 목표를 성취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인 권한 부여를 성취할 수 있다. 리처드 클라우드(Richard Claude)는 이 권한 부여를 “인간과 지역사회가 그들의 삶에 대한 통제 혹은 지배력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결정력을 증가시키는 과정” 이라고 정의한다.³⁴⁾ 인권교육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사항은 문제의 인식과 분석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 권리와 특히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교육을 “결인(beggars)을 청구인(claimants)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라 하는데, 이는 ‘자선으로서의 개발’ 을 ‘능력실현으로서의 개발’ 로 전환시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인권학습 활동에서는 이러한 “참여방법론” 을 적용하여 학습의 경험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방법론에 따르면 학습과정은 교육자가 전달하는 정보의 암기가 아닌, 학습자가 문제를 이해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과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은 공동체 내의 작은 지역단체의 대책위원회에서부터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역사회의 창출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PDHRE가 발전시킨 인권지역사회의 개념은 루이스 뎀포드(Lewis Mumford)가 언급한 대로 “수많은 갈래로 흩어진 제 각각의 광선이 한 초점으로 수렴하듯”³⁵⁾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의 모든 측면, 즉 가족, 학교, 시장, 문화적 활동, 법행정 등에서 인권과 관련된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그 사상에 기초한다. 지역의 삶에서 핵심적인 인권의 가장 확실한 예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 존중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의 전통적인 관습과 상반된다는 점과 무관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및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에 정의되어 있다. 요컨대, 인권원칙은 사회의 모든 맥락에 적용되며, 인권도시는 이러한 원칙을 폭넓게 적용하고

33) HRE의 이러한 목표는 Richard Claude의 Methodologies for Human Rights Education(웹페이지: <http://www.pdhre.org/materials/methodologies.html>)에서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음.

34) 위와 상동.

35) 주석 19 참조.

온전하게 재현하는 지역사회인 것이다.

지역의 인권단체 및 사회정의단체, 교육자, 지역지도자와 함께 PDHRE는 인권이라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도시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인권도시 창출을 위한 방법론 및 교육론을 개발해왔다.

인권도시의 기원과 정의

인권도시는 일반시민과 사회활동가부터 정책입안자와 지역관료들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규정과 기준에 의거하여 남녀노소 모두의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전반이 참여하여 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함으로써,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률, 정책, 자원 분배 및 사회관계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인권의 프레임워크는 책무성, 투명성, 상호주의, 참여, 양성평등 및 지속적인 교육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각 기관 및 정책 분석의 기반을 제공한다.

세계 각지의 PDHRE 네트워크가 지난 10년여 동안 개발한 인권도시 계획은, 국제 인권규정과 기준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인권이 각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개발의 프레임워크가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인권도시에서는 인권 및 그 실현을 위한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이 사회 및 경제 개발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전략과 방법론은, 정부기구, 법집행기관, 공무원, 종교단체, NGO와 주로 젠더(gender) 이슈, 아동, 빈곤, 교육, 식량, 주거, 의료서비스, 기본임금보장, 환경 및 분쟁 해결과 같은 이슈에 관심이 있는 지역단체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실행을 위해 수립된다.

인권도시는 세계 각지의 도시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중요문제에 대해 독특한 대응방법을 제시한다. 기후변화, 인구밀도, 이주, 분쟁, 환경문제 및 세계화된 경제와 관련된 복잡다단한 문제들은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다뤄야 할 것이

다. 이들 수준의 목적성 있는 인권호소는, 인권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덕 원칙을 표현하는 공통의 언어이면서 각 지역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질서와 국제 질서를 요청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다.³⁶⁾ 인권도시 프로그램은 세계인권선언문이 언급한 “사회적 질서”가 일반 시민들의 수준에서 취한 결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전제에 기초하며, 공동체와 마을, 지방, 국가기관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좀 더 광범위한 정책수준의 변화를 통해, 지역수준에서 “국제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한 공동체의 행동은 지역의 활동을 넘어서 부정의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수준에까지 나아간다.

냉전시대가 종식됨에 따라, 대부분의 학자나 정부들은 자유시장 해결책도, 사회주의적 계획도 - 어떤 체제도 실제로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 위에 언급했던 문제들로부터 인류를 구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국가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 세계관에 도전하고 단 하나의 도덕과 법적 프레임워크는 세계인권선언과 이에 기초한 기준과 원칙이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도시의 설립과 발전 과정

인권도시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권학습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다. 각각의 인권도시는 지역의 특수한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면들을 반영하는 고유의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이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참여적인 공동체 중심의 연구와 비판적 교육론에 입각하여 설립과 발전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

1. 운영위원회의 설립

각 도시는 사회의 주요 부문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비록 선출되고 임명된 관료들이 위원회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할지라도 민

36)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8.

주적으로 그리고 시정부와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2. 행동계획안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양한 대상을 위해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계획은 성평등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도시에 퍼져 있는 법, 정책, 자원배분, 그리고 권력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계획의 전략과 방법들은 여성, 아동, 노동자, 원주민, 가난, 교육, 식량, 수자원, 주거, 의료, 환경, 그리고 갈등 해결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일하는 정부기관, 법집행기관, 공무원, 종교단체, NGO, 그리고 지역단체들을 설립하기 위해 고안된다. 행동계획은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것으로서 인권을 배우고 사고하는 것을 지역의 우선순위에 두도록 한다. 이 노력들은 교과과정, 워크숍, 교육자 훈련, 교재와 영상교육자료 등의 연구와 개발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에 합의된 것은 인권을 실현함으로써 맞닥뜨리는 도전을 분석하고 이러한 도전이 더 넓은 국가적, 세계적 이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다.

3. 교육 및 기타활동 시행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가능한 한 많은 하부 위원회들이 필요하며, 수직적이고도 수평적인 전진적인 학습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이웃, 학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구들과 NGO는 인권의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그것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정의의 이슈나 관심과 관련된 자신들의 전통적 신념, 집단기억, 그리고 열망과 연결시켜야 한다. 변화의 주체로서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조언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문서화하는 법을 배우며 대안적인 시민참여 예산제(alternative participatory budget)의 개발이라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에 관여한다. 훈련이나 여타의 활동은 학교, 집, 지역센터에서 일어나며, 스포츠 활동과 일상 업무인 은행거래를 통해서도 일어나며, 교회나 다른 종교의 집회 장소, 직장, 시장에서도 일어나며, 관습과 전통, 그리고 예술적 창조활동을 실행하는 곳에서도 일어난다. 학습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여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촉진시킨다.

4. 인권도시의 업적 평가

운영위원회는 학습활동의 결과와 효과성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장 이상적인 평가는 해당 공동체의 모든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는 사회 역동성의 복잡성과 연결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공동체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감시와 평가 방법들을 도안하고 적용하며, 또는 그들은 보고의 의무로서 자금제공자가 제공한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개선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5. 노력의 홍보와 확장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얻고 문서화했다면, 많은 인권도시들은 그 경험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다른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조건에 맞추어 성공적인 모델을 적용할 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도시들과 자원을 공유하고 위에 열거된 순서를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 다른 곳에 있는 인권도시들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네트워킹, 세미나, 그리고 여성, 환경 등의 세계적 이슈와 관련된 기존의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이 프로그램의 다섯 개의 구성 요소 모두는 인권에 의한 시민, 공무원, 그리고 단체의 변화에 기초한 사회적 발전 과정에 이바지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다. 행동계획에서 핵심적인 단계는 “설계 훈련(mapping exercise)” 이라 부르는데, 이를 통해 참여자는 권력관계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발달시킨다. 이러한 설계 훈련은 종종 병원, 종교기관, 시청 사무실, 군사·경찰 부대, 이동의 근접성 및 학교와 같은 지리적 위치로 상징화되기도 하는데, 이는 공동체의 공간적 특성의 유사한 요인들로서 참여자가 자신의 인권을 충분히 향유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이 설계 훈련을 통해, 참여자들은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력관계를 다루고 희망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도록 행동계획을 더 잘 설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권도시를 시민참여를 통한 하나의 도시개발 전략으로 묘사해왔다. 장기 목표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주체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인권을 사회적 발전을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써 인식하는 데 합의하는 것이다.

각 단계의 시도와 결과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인권도시를 정의하는 것은 살아있는 경험이며, 다음 장의 주제가 될 것이다.

제3장

각 국가의 인권도시 사례 경험

우리가 인권에 대해 배운 것들이 우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게 해주었다. 전에는, 기혼여성들을 노예로 여겼다. 지금 우리는 가족 내에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이해한다. 이제 여성들은 자신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남성들도 그것에 동의하고 있다. (말리, 캐티 인권도시의 한 남성)

우리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인권이 논의되어 도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인권도시의 한 여성)

PDHRE의 경험

PDHRE은 인권도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1989년 이래 전세계 6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한 인권교육 세미나, 워크숍, 교육자 훈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등을 조직하고 있다. PDHRE의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인권 원칙과 활동에 관해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성차별과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행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동원하고 생활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PDHRE는 그 지역의 특수한 문화적·사회적 상황에 적용될 수 있고, 인권 규범과 원칙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아·태, 남미, 유럽지역에 걸쳐 연대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효과를 얻기 위해 교육자 훈련과 지역사회 조직을 통해 지역사회 능력 향상에 관여하고 있다. 교육대상자 선정은 우선 선발위원회가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 선발기준을 개발한 후에, 지원자를 추천한 지역 NGO와 협력하여 주의 깊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PDHRE는 조력자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전반적인 인권도시 계획과 운영은 지역사회가 전부 책임진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도시의 경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토론을 기대하며, 우리는 아르헨티나, 가나, 그리고 말리의 사례를 통해 각 지역사회가 인권도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주인의식을 가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Rosario)시이다. 1997년 6월 30일 로사리오 시민들이 그들의 도시를 인권도시로 선포한 후, 점점 커져가는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학습과 행동을 확장해나갔다. 1998년에는 동참하는 지역기관과 조직들의 범위가 커졌다. 이 도시는 야심찬 행동계획을 채택했는데, 이는 소녀의 인권침해 법정(Court on the Violation of Girls' Human Rights), 소녀의 인권에 관한 교육세미나, 「소년과 소녀의 인권(Boys and Girls Human Rights)」 서적 출판 및 배포, 소년과 소녀의 인권에 관한 세 개의 단편영화 제작,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 그리고 성매매업 종사자와 성적소수자에 대한 괴롭힘과 학대에 관한 보고서 등이 그 계획에 포함되었다. 1999년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의 재정 지원으로 인권도시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위원들은 12개의 조직과 지속하여 협력할 수 있었다. 1991년 활동은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대회, 도시 안전과 인권에 관한 세미나, 그리고 도시의 50개 학교에서 모인 약 1,000여명 학생들이 참가한 세계인권 선언 풀어 말하기 대회 등이 있다. 2000년도의 주요 활동은 아르헨티나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협약 준수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반박보고서(shadow report)의 작성에 기여한 활동, 로

사리오 토바(Toba)공동체에서 실시한 인권교육 워크숍, 그리고 미주개발은행(IDB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지원으로 실시한 이동영화관 등이 있다. 2001년도에는 시의회의 시민참여예산제 확대, 산타페 교육대학 교장 60명이 참가한 세미나 개최, 지역단체와 노동조합, 그리고 풀뿌리 NGO들이 모인 여성인권영화에 관한 토론회, 그리고 토바공동체의 참여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등이 있다. 2001년 12월 10일에는, 인권단체와 국회의원, 교직원노동단체(AMSAFE) 대표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지방법(provincial law)을 제정하기 위해 성공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다.

다른 예로선 2008년 가나 봉고지방에서 지역인권운동가와 여성단체,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전통적으로 과부에게 공개적으로 신체를 노출하도록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관습을 철폐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관습의 철폐운동과 함께 여성과 소녀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와 양성평등한 토지유산분배 계획 등을 실행했다. 각각의 인권도시들의 사업계획은 조정위원회의 집중적인 기획회의와 각 도시의 발달환경에 적절한 필요를 확인하고 발전지표를 정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노력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일에는 NGO 활동가와 지역사회 지도자, 인권운동가, 노동자 대표, 여성과 아동 단체, 원주민단체, 학계 및 종교계, 교사, 그리고 정치적·행정적 영향력을 지닌 지방정부 관계자와 특정 도시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관 등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 설계에 대한 UNDP의 지원과 함께 PDHRE는 전 과정을 통해 파트너로 참여했다.

세 번째 예는 말리인데, 여기서 PDHRE 말리지부, UNDP 말리사무소, 유네스코, 유니세프, 유네스코 말리 국가위원회, 캐나다대사관, 법무부가 여타의 인권 관련 주요기관들과 함께 인권도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캐티(Kati)의 인권도시는 지역사회에서 선출한 200명 중 32명을 선발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가나(Ghana)에선 추장, 왕대비(Queen mother)³⁷⁾, 국회의원, 남성, 여성, 청소년, 지역단체가 이해관계자에

37) 가나(Ghana)의 전통 위계질서에서 왕대비(Queen mother)는 추장의 어머니를 지칭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상황 감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때론, 영향력이 있는 왕대비는 추장의 영향력과 동등하거나 월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한 왕대비는 야 아산테와(Yaa Asantewa) 왕대비이다.

포함되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은 다른 유엔기관이나 양자 원조국(bilateral donor)의 대표와 면담했다.

인권도시에서 인권학습과 행동은 동시에 발달한다. 행동영역에서 두 가지 강한 결정요인이 있는데, 이는 주체기관(이는 보통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해석된다)의 영향력과 헌신도, 재정적 지원 규모나 시민들의 의지 정도이다. 재정 지원은 양자원조의 큰 규모의 지원금 혹은 지방정부건물 내 사무실 공간 배정을 의미한다. 한편, 정신적 지원은 물질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인권도시의 대표적인 사례연구

십년 넘게 인권교육을 사회적 발전의 중추로 만들려는 노력은 서로 다른 도시 센터들에서 실행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다. 아프리카, 남미, 유럽, 그리고 북미에서 인권도시의 형성과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인권도시가 성취한 것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막 탄생한 신생 인권도시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A. 아프리카의 인권도시

그 어떤 지역보다 아프리카는 인권도시가 활성화된 지역이다. 어떤 이들은 아프리카의 모든 인권도시를 한 가지로 분류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각 도시가 맞닥뜨린 주요 문제들 간에 어떤 유사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지역과 국가들의 역사, 문화 및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환경 등과 같은 외적 조건, 그리고 내외적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분쟁의 역사 등을 고려해볼 때, 아프리카의 15개 인권도시를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가나(Ghana)

법률정보센터(LTC : Legal Resource Center)는 인권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나의 비정부기구로서, 가나에서 인권도시 설립을 이끌었다. 법률정보센터의 임무는 1992년의 가나헌법에 의거한 가나 민주적 발전의 지평

을 확장하면서 사회집단과 개개인의 인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정보 센터의 주요임무는 조사·홍보·법률자문(Research, Advocacy, Advisory, Service: RAAS)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국가 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간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이 접근은 인권도시 운동의 모델과 임무를 잘 시사해주고 있다. 법률정보센터가 수행한 모든 활동들은 인권도시와 RAAS이라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주요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법률정보센터는 현존하는 인권도시인 니마(Nima), 맘모비(Maamobi), 뉴타운(Newtown), 봉고(Bongo), 그리고 웨일웨일(Walewale)의 모든 공동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사무소들은 서로 상당히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니마, 맘모비, 뉴타운은 아크라(Accra : 가나의 수도)의 도시지역에 있고, 봉고와 웨일웨일은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국경근처의 동쪽과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다.

니마, 맘모비, 그리고 뉴타운

인권도시의 역사적 배경

니마, 맘모비, 그리고 뉴타운은 아크라(Accra : 가나의 수도)의 도시중심부에 위치한 이웃 공동체들이다. 이들 공동체는 도시의 빈민촌이었다. 그들은 주로 이주민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서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온 소상인들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용사들이었다. 이곳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결국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여기에 그들의 보금자리를 꾸렸다. 니마, 맘모비, 그리고 뉴타운은 도시 빈민가의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편의시설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인구 밀집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에는 다양한 인종적, 종교적 집단들이 있다.

1988년 법률정보센터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니마, 맘모비 그리고 뉴타운은 인권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조사원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그들은 니마, 맘모비, 그리고 뉴타운을 인권실현운동을 출범시키는 지역사회 중 하나로 선택했다. 인권실현운동은 특히 지역 시민의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명백하게 법률정보센터가 니마, 맘모비, 그리고 뉴타운을 선택한 것은 국제통계에 이 지역들이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다.

니마, 맘모비, 뉴타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들, 즉 이용가능한 식수의 부족, 불안한 전력 공급, 치안 부재, 편의시설 부재, 위생 문제, 높은 범죄율 등은 이 지역사회 안에 인권 지식(실체적·과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주었다.

인권도시의 개발

우선, 인권교육과정에 대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 후, 법률정보센터는 젊은 변호사와 사회과학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한 팀이 선정한 주요 이슈에 관한 대중 인권교육을 시작했다. 법률정보센터는 1999년과 2000년에 지역사회 지도자 포럼(Community Leaders Forum)을 조직했다. 이 지도자 포럼은 2001년 인권도시로 선포되었을 당시 운영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니마, 맘모비, 그리고 뉴타운 인권도시의 설립을 이끄는 과정에 관여했다. 이들 활동가 중에는 추장,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시공무원, 변호사와 인권운동가, 법률정보센터 인턴과 직원들, 민족 지도자들, 경찰, 군 장교, 장애인단체 대표, 그리고 학교 당국자 등이 있었다.

인권도시는 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데 아직은 위원회의 활동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다는 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참여적 접근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법률정보센터의 조정들은 지역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식적인 구조와 비공식적인 구조를 활용했다.

니마, 맘모비, 뉴타운의 중요한 문제들

니마, 맘모비, 뉴타운의 중요 인권문제들은 실제로 국제인권규범의 전범위에 걸쳐 있다. 지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경찰의 잔혹성과 관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도 포함된다. 인권침해는 또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서도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니마, 맘모비, 뉴타운 사람들의 사법권, 자격권, 주거권 등에 대한 접근이 이에 속한다. 더 나아가 위생, 건강권, 여성의 생식권에 관련한 문제들도 있다. 교육 받을 권리, 특히 기초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이슈 역시 지역사회의 관심사로써 대부분의 인구가 가난하기 때문에 공립학교가 턱없이 부족하여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다.

니마, 맘모비, 뉴타운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혁

몇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이들 지역 내의 지역사회기반 단체를 활용하여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법률정보센터는 지역사회기반 단체(Community-based Organization: CBO)가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직접 설득하는 전략을 택했다. 니마와 맘모비에서 참여한 단체는 청소년단체연합(Federation of Youth Clubs : FYC), 무슬림 가족상담서비스(Muslim Family Counseling Service), 니마와 맘모비의 적십자어머니연합(Red Cross Mothers' Club)지부, 성차별행동단체(Gender Action Unit) 등이 있다.

현재 광범위한 훈련과 감수성 증진을 통해 이들 지역사회 조직들은 직접적으로 정부공무원들과 함께 그들의 관시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단체들은 젊은 남성과 소년에 대한 경찰의 잔혹한 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지방공무원들을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동회의 개최로 지역 주민들도 지역의 개발 아젠다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의 수집과 전략 수립은 지역주민들이 관계당국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공동체 행동은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었고, 인권프레임워크의 적용은 공동체에 강력한 목적 의식을 부여했다.

집단적 문제해결을 통해 사람들은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을 수립한다. 원칙상 이는 공동체에게 행동을 지속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하게 된다. 법률정보센터가 종종 개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침해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은 공동체와 경찰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지역사회 지도력과 경찰이나 여타 사설 보안관과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도 개선됐다.

분쟁 해결을 위해 공식적 구조와 비공식적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강점이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법정과 같은 공식적인 해결방안을 바로 구하기보다는 정보수집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과의 대화와 같이 덜 공식적인 방안을 사용한다. 일단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면, 지역주민들은 협상이나 조정, 중재를 사용하며 법정해결은 최후의 수단이 된다.

미래계획 - 니마, 맘모비, 그리고 뉴타운

니마와 맘모비 지역의 인권도시의 미래는 밝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가용 자원을 제공하는 것,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시민과 정부의 결속 과정은 인권이슈 및 인권도시 형성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권개념에 대한 감수성을 훈련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

법률정보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인권도시 설립을 주도한 기관으로써 모든 운영과 활동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간과 필요수단을 제공했다. 사무실은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있고, 인권도시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공간이 됐다. 변호사, 학생, 지역사회 지도자, 그리고 일반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대화를 촉진하고 지식 공유를 증진시켰다.

봉고(Bongo)와 웨일웨일(Walewale)

가나의 북동지역 상부에 위치한 봉고와 웨일웨일 지역사회는 니마, 맘모비, 그리고 뉴타운이 지니고 있는 문제와 유사하게 빈곤이 가져온 문제 및 여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 인권도시를 조직하지는 의견은 개발 및 빈곤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정보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의 결과이다. 법률정보센터

는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보다는 그 반대로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법률정보센터의 의도는 지역사회의 열망이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체가 인권도시라고 선언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정보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 개발과 관련한 인권지식 공유모임을 진행했다.

이 도시들의 독특한 특징은 인권도시를 만드는 데 쏟은 강한 헌신과 인권훈련을 받기 위한 준비성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지역사회의 60~70%의 사람들이 문맹이고, 여전히 전통 문화적 관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몇 문화적 관습은 비인간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봉고지역의 문화적 관습 중에 과부들이 사람들과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알몸으로 강가에서 목욕해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웨일웨일에서는 아동학대와 아버지에 의한 방치에 대한 진정이 있었는데, 특히 이것은 자신들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봉고와 웨일웨일 인권도시는 니마, 맘모비, 그리고 뉴타운 모델을 따라 2005년 법률정보센터가 시작했다. 법률정보센터는 이들 지역에서 인권과 좋은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이 지역의 지식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역에서는 인권학습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인권도시를 설치할 필요는 더욱 명확해졌다. 또한 이 지역들의 심각한 수준의 빈곤도 고려 사항이었다.

일련의 회의와 인권학습에 관한 훈련을 시행한 후 인권도시가 출범했다. 특히, 2003년과 2004년에 법률정보센터는 봉고와 웨일웨일에서 일련의 인권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을 소개했는데, 이는 워크숍 참가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의 개선을 책임지는 기관과 지역사회 안에서 그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법률정보센터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보다는 참가자들의 집단적 참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이런 시도들은 가나의 빈민지역공동체에서 단체와 개인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률정보센터의 위임으로 한 것이다. 법률정보센터는 전략 계획에서 인권원칙에 관한 전국 규모의 교육과 감수성 프로그램의 실행 및 이것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에 구체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니마, 맘모비, 뉴타운 처럼, 봉고와 웨일웨일 인권도시의 업무는 전통적인 관계당국의 관련 인사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와 지역 단체들이 운영한다. 웨일웨일의 이런 조직들로는 인권도시와 이웃돌봄재단(Neighbour in Need Foundation)이 있다. 봉고에는 개발을 위한 고우리 연합(Gowrie United Front for Development)과 봉고 인권도시가 있다.

인권도시는 지역의회(District Assembly), NGO뿐만 아니라 인권과 법무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Administrative Justice: CHRAJ)나 국가시민교육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Civic Education: NCCE)와 같은 지방정부 조직과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인권도시, 봉고와 웨일웨일의 중요한 이슈들

봉고와 웨일웨일 인권도시의 중요 이슈들은 니마, 맘모비, 뉴타운의 이슈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면,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과 과부의 알몸 공개 목욕 의식과 같은 문화적 관습을 통한 여성권리 침해 등이 있다. 다른 구체적인 예를 보면, 소년들의 교육권인데, 이들은 특히 목동이나 농장 일손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건강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몇 천 명의 인구 당 한명의 의사가 진료를 본다. 다른 문제로는 나쁜 문화적 관습들, 즉 여성 생식기 할례, 조혼, 과부의 알몸 공개 목욕 의식, 여성의 상속권 배제, 그리고 여성의 재산 소유권 불인정 등이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혁신

인권도시는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대안적 분쟁해결센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enter : ADR)를 각 지역에 설치했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에 대 규모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과 지역 공무원들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킨다. 법률정보센터는 인권도시의 운영에 협력하여 사람들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권도시 사무실을 열었다. 봉고에서의

주목할 만한 업적은 비인간적인 문화적 관습인 과부의 알몸 공개 목욕 의식을 법으로 금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봉고지역에서 과부의 알몸 공개 목욕 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권도시의 활동가로서 법률정보센터와 인권운동 단체는 이러한 관습들의 철폐 운동을 벌였다.

인권도시에서 시민참여의 또 다른 예는 공중보건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봉고의 정부기관이 간과한 문제였다. 봉고 인권도시는 빈곤층을 위한 국가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 NIHS)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지역 공동체를 교육하고 비정치적인 지원을 권장하고 의사소통 통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을 계획했다. 그들은 이 목적을 성취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노인과 어린 아동들이 건강보험에 대규모로 가입하는데 일조했다.

가나 인권도시들의 전반적인 전망

인권도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 및 소송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몇몇 안건들은 법률정보센터가 조직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제기했다.

인권도시 안에서의 실천은 인권 실현의 의미를 사회적 지위, 인종, 국적, 성별을 떠나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국제협약들과 여타 중요한 인권조약(세계인권선언 처럼 법적 구속력이 약한 문서를 규범화 함)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들이 마음에 품었을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지향한다.

전 세계의 PDHRE 네트워크에 의해 발전한 인권도시의 출발은 효과적인 국제인권규범과 기준들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시민들이 인권을 그들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이런 접근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지향하는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특히 유용했다.

2. 케냐

배경

코로고초(Korogocho)는 저소득층 주거단지(주로 도시빈민가로 일컬어지는)로서 정부부지 내에 위치한다. 이곳은 1952년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고초는 9개의 마을로 나뉘며, 케냐 전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루오(Luo), 키쿠유(Kikuyu), 보라나(Borana) 그리고 소말리(Somali) 민족집단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각각 그들만의 다양한 문화적 관습을 가지고 있다.

코로고초는 케냐에서 1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세 번째로 큰 빈민가로서, 나이로비(Nairobi : 케냐의 수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다. 빈곤한 삶의 환경은 이 지역의 전반적인 현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곤의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에이즈는 케냐 전체의 주요 문제이다.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거나 병이 들어 누워 있는 어른들과 함께 거주한다. 적절한 위생의 부재나 깨끗한 물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말라리아, 결핵 그리고 여타의 질병들은 높은 유아동 사망률의 원인이 된다.

사람들은 인권과 관련하여 빈곤에서 불평등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무시당해 왔다. 가장 큰 인구 집단인 청소년의 삶은 가난과 문맹, 실업, 범죄와 약물남용 등으로부터 취약한 상태이다. 게다가 청소년에 대한 수많은 고정관념으로 인해, 그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행할 기회나 지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코로고초에서 수행된 기존의 연구와 경험을 보면, 무지가 인권침해의 중요한 원인을 알 수 있다.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인권침해는 경찰의 학대,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육 부재, 영양실조, 적절한 위생과 주거시설의 부재, 여성건강문제, 개인의 안전, 참여와 의사결정 문제 등이 있다.

지역사회의 동원

미스 코치 계획(Miss Koch Initiative)은 코로고초 청소년들의 르네상스 운동으로서 2001년에 시작되었다. 지역에 팽배한 소녀와 여성인권침해에 대해 코로고초의 청소년들이 함께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미스 코치 계획 추진 이후 소녀인권 해방 문제에서 코로고초의 사회의 전반적 변화로 발전했으며,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Service) 산하의 자립단체로 등록되었다. “모든 남녀 구성원들의 전인적 발달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라는 비전을 가진 이 조직은 교육 향상, 소녀의 역량 강화와 발달, 소녀의 권리에 대한 사회의 인식 수준 제고, 지역사회 사회작·경제적 개발 기회의 창출, 그리고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런 활동 배경에는 가나 인권도시의 PDHRE 회장으로부터 인권도시를 배운 후 그 프로그램을 소개한 미스 코치(Miss Koch : 여성인권신장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자신의 인권을 간과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깨달음이 인권도시를 시작해야겠다는 미스 코치의 결심의 원동력이 되었다. 첫 번째 단계로써 지역사회 지도자와 기관 및 단체장들에게 연락하여 2006년 5월에 이틀 일정의 인권 워크숍에 참여하도록 독려했고, 여기서 인권학습을 소개하고 인권도시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워크숍에 참가한 지역사회 지도자는 지역사회의 인권 교육자로 임명되었다.

인권도시 개발

5월 워크숍에 이어 지역 어르신과 모든 연령대의 지역사회 지도자, 지역 및 종교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회와 지역사회는 “지식이 힘”이라는 신념아래 연합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 지금 보다 더 많은 가용자원이 있다는 것과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인적자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미스 코치의 인권도시 활동은 인권지식(특히 사회·경제적 권리)을 널리 홍보하는 것과 지역 내의 사람들의 연령, 사회적 지위, 민족에 상관없이 협력하는 능력의

강화, 정부기관 및 국제 NGO들과 연대하는 능력 배양,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기획·분석하고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펴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현존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법은 미스 코치가 이미 개발했고, 이를 인권상황에 맞추어 조정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더 큰 통합성과 더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인권이라는 공통의 언어(그리고 공통의 이슈)를 통해 케냐의 다른 지역사회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학습포럼(Community Learning Forum)은 아홉 개의 이웃 지역들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연극과 음악, 그리고 춤을 통한 교육과 학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라디오인 코치 FM(Koch fm)이 코로고초에 생겼으며, 이는 인권과 인권도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국과 미스 코치 인권도시(Miss Koch-HRC) 사무실은 지역사회센터내의 탁 트인 넓은 공간에 서로 맞닿아 있다. 이곳에는 지역사회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건물들이 있는데, 보건소, 지역장 사무실, 경찰과 지역 건물 등이 있다. 이 넓은 공간이 마을의 중심부이다. 주기적으로 여성들은 이곳에 와서 문화적 의식인 전통적인 부족 춤을 추고 수공예품을 전시한다. 젊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춤과 각종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최근에 들어와 개최된 이 행사들은 이 지역 많은 이주민들의 전통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세대 간 즐거운 대화의 방법이기도 하다. 코로고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로등은 밤길을 비추어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하여 공공의 안전에 일조하고 있다.

아직 강도와 강간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거리 안전 요원을 조직하여 예전의 높은 발생률이 다소 줄어들었다. 밤에 허술한 판잣집에 침입하거나 거리의 불량자들과 어울렸던 실업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지키는 안전요원으로 등록했다. 거주자는 정기적으로 기금에 돈을 내며, 각 안전요원들에게 적은 양의 임금과 안전요원 티셔츠가 제공된다. 도시 치안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이 일은 지역사회 내의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성취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사람들이 지배적인 선입견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고초에 대한 이미지와 만연한 현실은

빈곤과 위협이다. 택시들은 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한다. 또 하나의 지역사회의 위협과 얽혀있는 공포의 예는 여성이 출산할 때 일어난다. 난산으로 고통받는 대부분의 여성과 에이즈에 감염된 여성들은 그 마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병원에 갈 수가 없다.

전진과 성취

인권교육은 미스 코치가 지역사회에서 시작한 주요 관심과 프로그램들과 상호연관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적 전환으로 묘사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형식을 부여한다. 몇 가지 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사회적·경제적 권리 및 좋은 거버넌스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건강권의 실현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의 이해와 이에 기초한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거나 한부모로서 집안의 가장들이다. 자선단체는 식량을 제공하지만(비록 일일 영양권장에 부족한 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먼 거리를 걷지 못할 정도로 아픈 상태라면 배급 지역에까지 가서 식량을 받아 오기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에이즈 치료약은 음식물 없이 복용하면 큰 부작용이 따른다.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에 여성위원회를 조직해,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마다 식량을 배급했는지,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는지, 그리고 적당량의 식수를 공급했는지를 확인했다.

코르고초에는 매일 진료하는 영구적인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국제 NGO나 다른 기구의 비정기적인 의료지원으로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소규모 건강센터를 개설하여 에이즈 검사, 응급처치,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말라리아, 이질, 탈수 등을 위한 약을 제공하고 있다. 몇몇 지역사람들은 응급처치와 기본적인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다. 운영위원회는 건강권에 관한 교육시행에 관한 여러 보조금 지원 요청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최소 한 주에 며칠은 정규간호사가 상주하길 요청했다. 선거 후에 일어난 갈등으로 이 계획들은 곧 폐기되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서 단순히 재정적·물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속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한 지역 사회활동가는, “만약 우리가 좋은 무엇인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권인지 모른다면,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항상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은 운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합니다.”

물 부족은 지역사회 의 큰 문제점이다. 지역사회로 운반할 수 있는 물탱크를 가져와야 한다. 지역에서 선출된 공무원들이 물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이고 배분 또한 평등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미스 코치가 나서기 전까지 시민들은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물 배분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미스 코치 이후 인권도시 구성원들은 물 배분 시스템을 조사하고, 그들이 물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자의적인 물 배분이 원래 계획된 방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자신들의 권리를 이해한 후 시민들은 지역의 물 공급자와의 접촉부터 물 배분까지 감독했다. 그들은 사용자들에게 약간의 돈을 내도록 했는데, 이는 감독자들이 뇌물이나 시장가로 매매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과부와 여성, 소녀의 사회적 지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미스 코치를 설립한 주요한 동기로 인권교육에서도 계속 다루어 왔다. 사실, 여성의 권리는 여러 주제에 걸쳐 있는 문제이며,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한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확고하게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비록 코로고초는 비공식적인 거주지이지만, 거주자들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나이로비에 있는 시청과 정부들과 정치적·행정적 관계를 구축한 대표도 두고 있다. 2007년 12월의 선거를 고대하며, 지역 활동가들은 각 후보들의 인권기록에 기초한 인권점수를 기록한 인권보고서 카드를 만들었다. 또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유권자 인권 캠페인을 열어 투표 참여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했다. 유권자들이 자신이 속한 민족과 종교집단을 따라 투표하기보다는 후보자들의 장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활동가들의 목적이었다.

방해된 계획

2007년 선거 전, 인권도시팀들은 시민들이 투표권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고 후보자들의 인권 “보고서 카드” 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 코로고초는 놀랍게도 근처 빈민가가 겪은 살인과 방화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코로고초의 시민들은 민족출신을 따지지 않고 서로 결속력을 다졌다. 코로고초의 여덟 개 마을 중 중 오직 두 곳에서만 외부인이 폭력과 공격을 당했다. 인권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즉, 그들은 평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향후 폭력을 예방하며 평화를 건설하는 전략적 세션들을 개최했다. 젊은 사람들은 인권존중을 제고하기 위한 거리공연들을 하고, 그들의 지역 라디오인 코치 FM은 인근 빈민지역의 폭력을 피해 코로고초와 임시대피소로 피신한 사람들을 위해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모금 운동을 계속했다. 지금은 전체의 지역사회가 갈등 후 외상치유에 관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중이다.

폭력의 여파와 재건

인권도시의 미래는 매우 중요하다. 가난은 그전보다도 심각하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직업과 식량을 구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인권도시 본부는 폭동으로 파괴된 후 임시사무소로 이전했다. 운영위원회는 인권교육을 좀 더 분권화하여 실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여전히 하루하루의 일상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인권카페를 소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인권카페는 낮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시도이다. 예를 들어, 구두닦이들을 위해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인권교육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는 휴식시간이 없고 불안정적인 다른 집단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자원의 부족으로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실행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단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사람들은 인권도시의 총책임자인 로즈 나위라(Rose Nyawira)에게 활동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건 숭고한 아이디어로써,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왔다가 가겠지만 아이

디어는 여기 남아, 지금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로즈는 “코로고초의 사람들은 인권도시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계속 살아 움직이도록 지킬 것입니다.” 라고 했다.

3. 르완다

배경

르완다 법무부의 자문위원인 파비엔 카냥구쇼 카라미라(Fabien Kanyangusho Karamira)는 말리에서 열린 교육프로그램을 지켜보며 인권도시의 혁신성에 놀랐다. 카라미라(Karamira)의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다른 사람들도 지역사회 내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대학살로 다 파괴된 사회 구조를 현존하는 자원들을 가지고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투치(Tutsi) 민족사람들은 대학살의 잔혹행위를 경험했다. 무샤(Musha)의 카톨릭 교회에서 4,256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와 집에서 무차별하게 살해당했다. 대학살기념장소(Genocide Memorial Site)는 무수한 학살의 잔재를 간직하고 있다. 오늘날 50,875명의 대학살 생존자들이 무샤 행정구역에 있다.

2005년에 이르러서야 르완다는 1994년 이전의 경제 상태를 거의 회복했지만 무샤 지역은 그렇지 못했다. 비록 몇몇의 광부가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광산으로 내려갔지만, 더 이상 금, 콜탄, 주석을 채석하지 못했다. 지역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빈곤 수준으로 내몰렸다. 극심한 가난과 공격적인 폭동의 결과로 높은 문맹률과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노동, 성매매 그리고 부적절한 보건과 차별 등이 심해졌다. 마지막 문제는 특히 고아, 과부, 소인(小人) 혹은 바트와(Batwa) 민족, 지적·육체적 장애인, 에이즈 보균자 그리고 대학살에 관여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회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이 더욱더 심각했다.

르완다의 첫 번째 인권도시의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르완다 인권교육을 위한 시민운동(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Rwanda)

: MPEDH/RWANDA)으로 르완다에 그들 조직을 등록하고 위의 지역적 상황에서 무샤를 인권도시로 건설해갔다. 무샤는 키갈리(Kigali : 르완다의 수도)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도로에 인접해 있고 통신과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마찬가지로 인권도시 계획을 지지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설립 구성원들이 이 인권도시 프로그램을 무샤 시민들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이다. 무샤 인권도시 사업은 2007년 10월 29일에 정식 발족되었으며, 르완마가나(Rwamagana) 지역 경제부시장이 대표가 되었다. 지방정부는 무샤 인권도시를 르완다 정부가 고수하는 원칙인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중요한 지원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지방정부가 이 인권도시 사업에 헌신적인 지지를 쏟는 이유이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샤 지역의 조언자(counselor)이다.

인권도시의 건설

첫 번째 단계는 신중한 생각과 계획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무샤 전체인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일이었다. 대학살과 이에 따른 상처들이 모든 고려 사항들을 봉인해 놓은 장막과 같았다. 대학살의 생존자들과 가해자들의 친척이나 자녀들을 함께 불러 모은다고 상상해보라. 혹은 아동에 대해 전혀 관대하지 않은 경찰과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내팽개쳐진 청소년들 간의 대화를 시도해본다고 생각해보라. 농업종사자와 여성, 종교지도자, 지방정부, 경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의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자신의 임무와 공동의 목표를 정한다. 이 모든 시민들이 자기 자신을 인권도시의 일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좀 더 확대된 범위에서 많은 조직이 토론과 회의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지역사회 내의 핵심 문제들을 확인했다.

그들은 사회적 통합이 인권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결론지었다. 에이즈 환자, 고아, 과부, 장애인, 대학살 생존자, 그리고 소인(小人: 바트와 민족)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을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포함시킨다는 의미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르완다에서 정치권의 지지를 입

어 여성 쿼터제를 실시하여 30%이상의 고위직을 여성에게 할당하며 교육의 기회를 증진하고, 여성권 증진 NGO 활동 촉진 등 정책적 단계를 통해 여성권의 증진을 위한 활발한 노력이 있다. 하지만, 르완다 여성들은 아직도 많은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극빈층으로 살고 있다. 가족계획에 대한 동기의 결여, 전통적인 낙농법 이용, 영양실조를 유발하는 식습관, 그리고 소녀들의 학습권 무시 등과 같은 전통적 가치가 여성이 발전과정에 참여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또한 여성들은 예방적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성폭력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무사의 아동들의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 무사에서는 주로 대학살로 고아가 된 아동들이 가장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 아동들뿐 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지금 당장의 필요성을 떠나 미래 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아동은 초등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요인들이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점진적인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고아들은 학교에 등교하라는 격려를 거의 받지 못하며, 주로 자신과 형제자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 그들은 수업료 내거나 학용품을 살 돈이 없다. 가난한 부모들 역시 추가적인 수업료를 부담하지 못한다. 과부와 같이 매우 가난한 가정의 경우, 아동 노동을 소득원으로 여긴다.

빈곤은 르완다 국민이 직면한 국가적인 도전과제이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65%의 르완다 국민들이 빈곤한계선 아래의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다. 빈곤은 농업이 유일한 소득원인 무사같은 농촌지방에서 매우 심각한데, 소작농은 최소 생계를 위한 소득도 보장할 수 없다. 비록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그것은 절대 충분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농사방법은 또한 비효율적이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무사에서 토지사용권이 분쟁의 주요 원인이다. 그들 중 취약집단인 과부와 학살고아, 노인 부양가족, 장애인 가족은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다음 과정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이러한 집단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法制)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르완다공화국 헌법, 그리고 빈곤퇴치

에 관한 법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등과 같은 이슈에 관련된 법과 교육, 노동, 성차와 건강에 관한 국가정책을 포함한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이며, 또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당위성을 높여준다.

지역사회의 인권학습은 내적 응집력과 통합성을 높이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동기를 수반해야 한다. 르완다에서는 민족, 종교, 인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차별당하는 다양한 집단을 이해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특정한 필요가 남아있다. 그러므로 여성, 아동, 장애인, 원주민들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지역적 교육을 실행했다. 게다가 1999년 이래 지속되어 온 국가적 차원의 화해와 화합의 과정을 진전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인권도시에서 통합되어 분쟁해결과 중재 훈련을 실시했다. 잠재적 분쟁들에 대한 경고시스템을 만들어 지역 내 주민들이 어떤 위협적인 징후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활동과 실행계획을 기획할 때 운영위원회는 다양한 노력들을 통합하기 위해 기존프로그램의 장점을 채택했다. 이는 고질적인 물질적 자원의 부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업적과 혁신

인권도시 프로그램은 지역관계자와 무샤 주거자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지지를 받았다. 제한적이었던 인권학습과 활동에 더 광범위한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서로 다른 사회집단(일반 시민, 지방공무원, 경찰, 군인, 다른 종교의 구성원 등)이 무샤의 발전을 위해 인권에 대해 토론한다는 사실은 전체 사회를 위해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인권이 유토피아적인 사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인권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모델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각 집단과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인권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정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은 지역사회의 긴장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는 갈등이나 잠재적 갈등이 확인되는 곳

에서 신속한 중재가 가능해졌다.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들도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사회는 이들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배우는 것은 직장, 학교, 음식과 보건 등에 대한 요구를 다른 시각에서 보도록 했다. 무사에서 인권실현과 좋은 거버넌스의 관련성은 대화와 설계 훈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권이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 아이디어들은 혁신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무샤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변화에 대한 도전

이제 인권이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가능하며 모든 구성원들의 열망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사람들은 어떤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극심한 빈곤의 상황에서 음식, 노동, 교육, 보건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들을 충족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토지의 이용, 상속권, 그리고 수많은 절도사건 등의 문제는 모두 시급한 문제이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는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성적 폭력도 포함한다.

그리고, 대학살과 맞물려있는 잠재적 분쟁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자주 이러한 긴장감이 언급되지 않으며, 때로는 잘못 인식되거나 인식되지 않기도 한다. 대학살의 생존자들과 가해자들의 친척·가족 간의 신뢰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수의 욕구를 느끼고 있다.

근접 국가인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케냐에서 자행되고 있는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르완다에까지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무샤까지 그 여파가 미쳤다. 르완다는 이들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과 반란의 여파들이 르완다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 국가들 간의 통행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르완다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케냐에 의존하는 고립된 국가이다. 맞닿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통행과 르완다, 부룬디, 그리고 콩고에 동일한 민족 구성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권침해의 여파가 전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인권을 온전히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데 참여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왔다. 그러나 지역의 정치 행정 관료들은 그러한 과정이 자신의 권력을 제한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 역시 공무원들이 저지른 불의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심각하지만, 이러한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긍정적인 과정이다. 지금은 무샤의 남성과 여성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있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여 이제는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무샤에서 진행 중인 행동들

인권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출생신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르완다의 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교육, 보건, 아동인권보호와 같은 기본인권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학살로 인한 인구 이동, 친척도 없이 살거나 아동의 삶에 아무 관심이 없는 먼 친척과 살고 있는 수많은 고아들, 그리고 미혼가정의 아동이나 성폭행으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은 법적인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 인권도시는 어른과 아동에게 법적인 출생신고의 필요성을 제고했다. 더 나아가 인권도시가 지방정부에 제출한 행동계획에 대학살 고아와 소년소녀가장 가족을 위해 학비, 식음료비, 피복비 등의 지원방안이 강조되었다. 지역정부도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무샤위원회 위원들은 르완다 모든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이와 유사한 계획을 준비했다. 이것은 인권도시계획이 근처 지역사회로 퍼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에이즈 환자들과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르완다에서 에이즈에 대한 사고방식이 많이 발전했지만, 이 질병에 대한 심각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들과 음식을 같이 먹으려 하지 않거나, 자신의 자녀를 에이즈 감염자나 그의 가족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그들을 성적 범죄의 희생자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의해 차별을 받는다. 여성은 특히 남성보다 감염률이 높아 더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여성 : 3.6%, 남성 : 2.3%).

인권도시 운영위원회는 르완다 정부의 통합 및 국가적 화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가카카(Gacaca) 법정과 함께 대학살 생존자와 대학살에 연루된 가족들과의 대화의 창을 열도록 도왔다. 여기서 취한 한 가지 신중한 절차는 인권도시 설립의 전략적 주체로서 대학살 생존자와 수감된 대학살 연루자의 가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들을 포함한 목적은 정부 정책에 맞추어 서로 다른 국가 구성원들의 화해에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계획은 각기 다른 사회집단 대표들을 한 테이블에 불러 모아 인권이 무샤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다음 단계는 지역사회의 행동계획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 중의 한 가지는 인권과 갈등해결 교육이었다. 교육을 수료한 후 이 대표들은 무샤에서 예방과 갈등 관리를 책임지는 위원회를 조직했다.

무샤 인권도시에서 지역사회의 행동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다양한 사회집단을 포괄하려는 그 노력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되고 모든 사람들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중장기 발전은 모든 사람이 인권이슈를 이해하고 대화에 참여할 때 가능해진다. 지역공무원의 지원 없이는 진전하기가 무척 어렵지만 이번 사례는 아니다. 현재 인권도시는 국가적 화해와 발전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해석되고 있다.

4. 말리

역사와 배경

말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서 인구의 64%가 국가빈곤수준 아래의 삶을 영위하며, 지방에서는 73%가 넘어선다. 인간개발지표(Human Development Index) 상의 177개 국 중 173위에 해당한다.³⁸⁾ UN-HABITAT는 말리 인구의 31%가 도시에 살고 있고 도시인구중 93%가 도시빈민층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한다.³⁹⁾ 연

38)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pp. 232.

속적인 가뭄과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막의 건조한 기후는 높은 출산·유아사망률과 예방 가능한 전염병의 높은 발병률과 함께 이 지역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이다.

7세부터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문자해독율(literacy rate)은 여전히 인구의 50%를 밑돌고 있다. 12%의 여성과 27%의 남성만이 문자해독이 가능하다. 건강, 교육, 소득격차, 그리고 취업률이 말리의 가난을 잘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리 안팎의 사람들 모두 사회적 자원과 단결적 삶을 말리의 강점으로 인식해 왔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나의 집단으로서 말리 사람들은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이루어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역NGO, 노동조합, 문화단체 연합,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시민사회조직 지지와 관습으로 강화되는 가족과 혈통의 사회응집력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는 전달수단이다.

1997년에 아다마 사마세쿠(Adama Samassekou) 교육부 장관은 PDHRE를 초대하여 국가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출범에 대해 토론했다. 사마세쿠 장관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솔라미스 궤니히를 만났으며, 그리고 1960년대 파올로 프레이리(Paolo Freire)의 이론을 적용한 PDHRE의 접근에 큰 감명을 받았다. 프레이리는 브라질의 철학자 및 교육자로서 억압받는 자의 요구와 비전에 조응하는 사회변화를 학습의 목표로 하기 위해서 교육자와 학습자는 대화적이고 민주적인 관계로 들어가기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회 안의 권력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사마세쿠 장관은 PDHRE 활동의 중심에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이 접근이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중점을 둔 사회적 발달과정임을 인식했다. 그는 PDHRE가 프레이리의 개념을 확장하여 인권을 지역사회가 직면한 중요 이슈를 분석하는 과정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에 매혹되었다.

사마세쿠 장관의 초대로 1997년, 두 PDHRE 멤버가 바마코(Bamako : 가나의 수

39) 2001년 통계예측임.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http://www.unhabitat.org/categories.asp?catid=214>)에서 찾아볼 수 있음.

도)에서 일련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인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길 열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고자 다양한 집단의 대표들과 청중들이 함께 자리했다. 2000년에는 사마세쿠 장관의 지도력 아래 남녀로 구성된 한 집단이 말리를 인권국가로 만들려는 목표는 가지고 PDHRE의 한 지부인 “PDHRE-말리지부” 를 시작했다. 이 신설된 단체는 여성의 권리, 경제학, 역사, 법 그리고 언론 분야의 교육자와 전문가를 포함했다. 각 멤버들은 시민사회단체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바마코대학교(the University of Bamako)나 정부 부처, 정보통신기구 그리고 민간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국가 전체에 인권을 실현하는 일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가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프랑스 식민지 통치시대부터 1960년대의 독립 때까지 국가적 이행기를 겪은 사람들이었다. 모두 아마도우 투마니 투레(Amadou Toumani Touré) 중령(“ATT”로 알려져 있으며, 2002년과 2007년에 말리 대통령으로 선출됨)이 무싸 트라오레(Moussa Traoré)의 20년간의 독재를 종결하는 것을 목도했다. 쿠데타는 학생, 노동조합, 정치·시민단체가 함께한 긴 투쟁의 정점이었다. 1992년 알파 오우마 코나레(Alpha Oumar Konaré)가 말리 제3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이는 전반적인 시민 참여와 지역 라디오 방송국들, 그리고 지역NGO들을 통해 시민사회의 부흥과 밝은 미래를 불러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캐티(Kati), 아프리카의 첫 번째 인권도시

PDHRE-말리지부의 구성원들은 인권도시를 건설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는 강한 NGO들을 기반으로 시작된 첫 번째 인권도시인 로사리오와는 대조적이다. 바마코의 PDHRE 회원들은 지역사회 실정과 문화에 맞는 인권도시 개발을 위해 자주 만나 그 개념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이 채택한 명칭은 “합의적 인권공동체 (Consensual Human Rights Community : CHRC)” 로서,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접근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말리는 농업국가이지만, 수도인 바마코는 아프리카에서 164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다. 원래는 바마코를 인

권도시로 만드는 안이 검토되었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크기와 복잡성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

캐티는 바마코에서 15km 떨어져 있으며, 군 요새를 가진 번성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서 4만명 정도의 인구를 가져 더욱 적합해 보였다. 몇몇 PDHRE 말리지부 회원들이 캐티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곳 출신이다. 합의적인 인권도시로서 캐티의 장점은 잘 발달된 시민사회와 여러 종교가 공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러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이미 지역사회조직, 인권, 참여적 지역행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대중교육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지역학교는 지역 내의 이슈에 성공적으로 관여했으며, 군 수비대와 중앙시장은 마을에 들어온 타 지역 주민들이 그들의 공동체로 돌아가 인권에 대해 말을 퍼뜨릴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말리에 만연한 가난, 차별, 건강, 교육 그리고 취업 등과 같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캐티에서도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존재는 인권에 기반한 문제해결의 여지를 준다. PDHRE 말리지부 회원들은 지역 NGO, 연합체, 청소년 클럽, 학교, 노동조합과 공공기관장들이 인권교육 과정에 내재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시장과 지방행정기관장들은 이 합의적 인권도시의 강한 지지자들이었다. 대의제 조직, 시민사회, 노동조합, 연합체, 그리고 여타 기관들의 지도자와 함께 캐티의 다양한 이웃 지역사회 대표자들이 인권에 대한 간담회에 참여했다. 간담회 기간 동안 PDHRE 말리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설립과 헌장 성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캐티는 2000년 12월 9일 인권도시로 공식 선포되었다. 대통령 부인인 아담 바 코나레(Adame Ba Konaré) 여사,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노동부 장관, 청소년·여성부 장관 등이 이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합의적 인권도시 개발

첫 번째 과제는 캐티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PDHRE는, 모든 인권도시 는 대체적으로 비차별의 본보기로 50대 50의 남녀비율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는 남성 중심적인 위원회보다 폭넓은 인권적인 시각을 허용한다고 주장해왔다. 첫 번

제 회의에는 여성인권, 아동, 청소년, 교사, 경찰, 사법부, 교사, 학생, 종교 지도자, 보건 및 군대에 관련된 지역NGO 대표와 시 당국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카디아투 케이타(Kadiatou Keita)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다수가 이 여성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특히 전통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만약 인권도시가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만약 캐티 내부에서 어떤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이 반대하는 집단도 포함해야 한다. 해결책은 현명한 남성위원회(Committee of Wise Men)를 만들어 위원회에 높은 지위의 남성을 임명하여 그들의 지혜와 명예가 운영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2000년 12월에 합의적 인권도시를 출범시킨 것이 캐티 시민의 이목을 끌긴 했지만, 이 탄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관건이었다. 캐티는 뚜렷이 서로 다른 이웃들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는 인권학습을 조직하는 기반이 되었다. 다양한 인권교육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캐티의 대중교육기관(Institute for Popular Education)의 강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각 지역에서 인권에 관한 야간과정을 실시했다. 지역 주민의 토론을 통해 확인된 문제들에 집중함으로써 인권에 기초한 직접적인 지역행동을 계획할 수 있었다.

지역 라디오는 지역사회 전반에 울려 퍼지는 인권 생각들을 모았다. 주간 프로그램에서는 리포터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인권에 관한 질문들을 모으고 기록했다. 그리고 생방송에 초청된 전문가들이 이 인권질문들에 대답했다.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를 개인화하는 것이 인권관련성을 부각시키게 되므로 인권의식을 고취시켰다. 이 주간 라디오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캐티 지역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06년 12월 라디오는 인권 지식 콘테스트를 열었다. 쇼는 청취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우승자에게는 상을 주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아주 성공적이었으며, 지역사회 청취자들이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들을 습득하도록 고무시켰다. 물론 인권학습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배우는 사실 이상의 것을 포함하지만, 라디오 쇼는 지역 내 인권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

캐티 인권 문제들의 발견

2002년 캐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팀과 UNDP 옵서버, 하버드대학교 인권분야 교수, 그리고 PDHRE 교육프로젝트팀이 이틀간의 세미나를 위해 캐티를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캐티 지역에서 대중적인 인권교육을 출범시키고 캐티 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긴급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인권의 합의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토론 후에 약 70명의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나뉘어 지역 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관과 지리적 공간을 확인했다.

활동 결과에 대한 집단 발표는 그들 스스로 지역사회내의 문제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을 인권원칙에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많은 보고서들은 동물시장의 위치, 도살장, 냉장하지 않는 고기 저장소 등이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언급했다. 이는 음식공급과 건강기준에 대해 캐티시 당국이 좀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고, 건강권은 깨끗한 음식과 물, 그리고 적절한 위생을 포함한다는 사실과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할 책무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이와 같은 설계 절차를 통해, 여성 참여자들은 그동안 분명히 언급해야 했던 문제들을 확인했다. 즉,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출산하고, 특히 가까운 마을들에선 난산의 경우에만 지역병원으로 가는데, 산부인과 병동은 층계 맨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불가능했다. 남성들은 이 불편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건축 계획에 무지했다. 여성의 건강, 특히 출산과 관련한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과 관행을 이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만든다는 좀 더 일반적인 관찰로까지 토론이 진행되면서 모든 참가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조사하지는 것에 동의했다. 이러한 훈련은 여성이 겪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여성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는 조건이라고 치부하지 않도록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를 알게 했다.

인권 실현에 도전적인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설계 훈련은 캐티 시민들과 지역공무원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시켰다. 이 대화와 그에 따른 행동계획은 일반 시민들과 지역NGO, 그리고 정부관계자 모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네트워킹하는 행동을 습득하는 능력배양 교육과정을 시작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인권언어의 소개도 매우 중요했다. 인권프레임워크는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집단들은 계속 합의적 인권도시의 전략적 계획에서 중심위치를 차지했다. 2006년 9월 7~9일 “지역인권교육 위원회” 구성원들은 풀뿌리 수준에서 인권학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제고하는 일을 맡고 있는 인권교육자 집단을 교육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그들의 도시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역동성을 통해 인권을 배우는 데 집중했다. 이 모임은 캐티의 14개 모든 구역의 행동과 관행의 변화를 통해 사회변환을 피하기 위한 사회동원과 인권캠페인으로 이어졌다. 이 캠페인 동안, 캐티 시민은 각 구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확인하게 되었고, 구역주민들이 구역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교육과 행동은 지역내 구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여러 번의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캐티 시청의 시대표, 행정공무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인권교육에 관여하게 되었다. 30명에서 60명의 지역훈련가, 시민사회단체, 지방 행정공무원들, 그리고 말리나 서아프리카 지역의 인권도시에서 온 참가자들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이들 조약과 인간안보와 전략적 계획 간의 관련성에 대해 교육받는 교육워크숍을 조직했다.

캐티의 합의적 인권도시 프로그램은 “전략적 행동가 총회,” “사무국,” 그리고 “지도와 조정위원회”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감사하고 확장해나갔다. 이러한 기구들이 가지는 대표적 성격은 폭넓은 범위의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헌신하도록 했다.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영향

인권고충센터는 마을 안에 설립되어 장이 열릴 때 운영되었다. 캐티의 시장은 37개 행정구역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 가축시장에 가보고, 두 곳의 병원을 방문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다.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인권고충센터는 인권에 관한 질문을 가져올 수 있고 인권원칙에 기초하여 분쟁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지역의 조직으로 시작되었다. 유산에 관한 권리 - 토지법에 따라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지만, 관습과 전통적 관행에 의해 왜곡되는 - 와 과부를 포함해 여성의 평등권 등의 문제가 이 인권고충센터에 접수된 이슈들이다. 많은 경우, 지역무슬림지도자와 여타 종교적·전통적 지도자들이 인권과 정의의 요구를 지지하기 위해 소환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성이 인권고충센터를 방문했다. 지금 십대인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 이유로 이제까지의 삶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거부당하는 큰 고통을 당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자주 보기도 했다. 그는 인권중재관에게 자신이 느끼는 부당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설명했다. 중재관은 그 소년과 함께 그 아버지 집에 가기를 제안했다. 중재관이 현관에서 소년의 아버지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나자, 소년이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하고 말하며 끼어들었다. 중재관이 보기에 양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서로 똑같이 닮아 있었다. 당황한 아버지는 친부권 문제를 꺼내 자신의 가정에 불화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아들에게 돈을 쥐어주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소년은, “저를 아들로 인정해주었으면 합니다. 저의 삶 매순간 아버지가 저를 거부했다는 것이 저와 저의 어머니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은 문 밖에서 일어났지만 아버지가 친부권을 신청하는 서류에 서명을 함으로써 공식적인 인증은 시청에서 진행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후 화해하지 못했지만 이 소년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다. 나중에 그는 중재관에게 “제가 당신을 찾아왔던 이유는 아버지를 죽일 때 누군가가 목격하길 바랬습니다. 저는 그때 칼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버지께 ‘당신이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이미 만족스러웠고 제 자존감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절 돌봐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것을 저는 다 찾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내 인권 개념이 소개되면서 나타난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오래된 전통을 바꾸지는 다른 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통적 관행과 인권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기 위해, PDHRE 말리지부와 바마코대학교(University of Bamako) 인문사회과학부 교수진들은 유네스코 기금으로 인권과 평화의 지역문화를 위한 태도를 연구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말리의 여덟 구역에서 도덕과 공동의 행동을 결정짓는 전통의 영향력을 조사했다. 많은 담화와 속담, 그리고 지역의 역사는 문화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런 담화와 속담은 교육 워크숍 중에 인권 개념을 연결하는 자연스러운 다리가 되고, 지역 내의 더 큰 통합과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지지한다.

앞으로 나아가기, 다가가기

합의적 인권도시로서 캐티의 예는 그 지역과 근처의 지역사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장날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인권도시 활동과 만남이 이루어진다. 2002년에 인권학습 교육자의 핵심집단인 대중교육기관 (Institut d'Education Populaire : IEP)의 지원 아래 훈련을 실시했고, PDHRE 임원 위원회의 한 위원은 녀 달 동안 인근 마을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과정은 호응도가 높았지만, 자금이 고갈되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교육자들에게 최소한 경비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말리 같은 빈곤국가에선 감당하기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들의 시간을 쪼개어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지만 가족을 돌보기 위한 수공업 노동, 정원사, 시장 상인 등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치였다.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교통 또한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농촌지역에서 저녁모임을 하기 위해 불을 밝히기 위한 케로신 연료를 마련하는 것조차 희생이 뒤따랐다.

이러한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말리의 합의적 인권도시 운동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2000년 캐티를 시작으로 출발한 합의적 인권도시가 현재 아홉 개가 되었다. 그 도시들의 설립을 연대순으로 보자면, 캐티를 시작으로 팀북투(Timbuktu), 카에스(Kayes), 시카소(Sikasso), 코나(Konna), 가오(Gao), 바라 사라(Bara Sara), 그리고 바마코의 제5구역이 그것이다. 각 도시에서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PDHRE와 합의적 인권도시 운동이 그들의 인권도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비록 운동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들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관계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각 도시들이 자신들의 수단과 역량에 맞추어 일하고 있지만, 팀북투, 가오 그리고 키타(Kita)에서 특히 활발한 참여와 개발이 있었다는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이 세 도시의 강점은 영향력 있는 지역NGO의 리더십으로 인해 가능했는데, 지역NGO들은 물질적인 도움과 자금을 지원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 중인 열성적인 자원봉사자들이 단체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구할 필요도 없었고, 그들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종종 사람들은 인권도시를 위해 일하고 싶어 하고 교육과정에 참가하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과도한 업무로 더 많이 책임지는 것은 부담스러워했다.

이 도시들의 운영위원회는 자신들의 관점에 전체적인 인권프레임워크를 통합시키게 되면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팀북투의 첫 번째 활동은 2004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독립적 학습이었다. 팀북투 내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의 하나로 옥외게시판을 도입함으로써 전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동원했다. 모든 도시는 최대한 성별균형을 맞추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일관된 양식을 따랐다. 다음은 마을 내 교육 워크숍을 조직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이 강조한 인권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권도시들은 교육자를 교육하는 직원을 공유하고 다른 말리 인권도시들과의 직원교류를 통해 연대의 끈을 견고히 했다.

말리가 아주 많은 인권도시들을 가질 수 있게 한 하나의 장점(그리고 정말 필수적인 것)은 11개의 공식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어가 공식 언어이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다. 교육자료를 지역의 언어로 번역하고, 말리의 강한 구어적 전통과 낮은 문해율로 인해 교육할 때는 지역 내 언어로 된 청각자료가 필수적이다. 여러 언어가 한 구역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교육자훈련을 한 구역 내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실시함으로써 언어 장벽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정당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생긴 결속력은 말리의 인권도시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겨난 결합력보다 제한적인데, 이 결합력은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아젠다보다 폭넓은 주제들에 걸쳐 연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PDHRE 말리지부는 여덟 개 행정구역 각각에 인권도시를 갖는 것이 목표였다. 이것은 말리를 인권국가로 만드는 원래의 꿈을 실현하는 하나의 절차일 것이다.

B. 유럽의 인권도시

오스트리아는 PDHRE와 협력하여 온전히 개발된 인권도시를 두고 있는 현재 유일한 유럽국가이다. 그라츠(Graz)는 진정으로 그러한 최초의 도시였다. 두 번째 인권도시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의 비학(Bihać)으로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다. 인권개념은 유럽의 많은 의회시스템과 결합했고 그리고 인권개념의 원칙들은 유럽연합과 유럽의회의 정책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원칙이 시민들의 의식으로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부권인 인권의 풍요로움과 그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도 완전히 발전한 인권 정부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이동과 환경변화, 그리고 무력분쟁은 이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시민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인권원리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점점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1. 오스트리아

역사와 배경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도시의 역할과 고통들이 그라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했고, 이는 집단 기억 속에 살아남아 있다. 수천 명의 전쟁포로들이 도시 인근에 구금되었고 이들은 제1·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상황과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 그라츠는 특히 나치(Nazi)사상을 강하게 지지하는 도시였다. 비록 비엔나(Vienna)보다는 유대인 거주인구는 적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라츠 지역인구의 큰 부분을 구성했다. 중세시대에는 유대인 거주지역이 번성하기도 했다. 1938년 나치는 소수의 유대인(2천여 명)을 추방했으며, 그래서 1940년 그라츠는 유대인 청정지역(Judenrein)으로 선포되었다. 종교적 불관용(religious intolerance)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16세기 대다수의 귀족과 시민들이 루터신교로 개종할 때 카톨릭계 합스부르크 통치자는 그들에게 가톨릭으로 다시 개종하든지 아니면 국외로 망명할 것을 강요하면서 가톨릭 국가로 되돌리려 했다. 1781년도에 들어와서야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었다. 아마도 이러한 불관용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전쟁 후 그라츠 내의 통치자들을 향한 비판적 태도가 자리잡았으며, 이는 다시 1970년대 시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강력한 시민사회는 지역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라츠는 상대적으로 우파적 정치 요소들과 시민사회의 참여, 그리고 권위적인 문화를 가진 꽤 독특한 도시이다. 그라츠는 25만명의 시민들 중 4만 명 이상이 대학생인 대학마을이다. 또한 이 도시거주자 중 은퇴자의 비율도 높다. 중요한 유럽 경제의 중심지로서 인구이동이 상당히 많으며 견고한 중산층이 자리잡고 있다. 그라츠는 사회 민주당원인 시장이 민주당(People's Party)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많은 사회·문화 계획들이 지원을 받았다. 2003년에는 그라츠가 유럽의 문화수도(Cultural Capital of Europe)로 선정되어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절정에 다다랐다. 2008년 민주당(People's Party)의 승리로 녹색당(Green Party)과 연합정

부를 형성하면서 인권은 유난히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라츠 인권도시는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건설될 수 있었다.

인권도시의 개발

그라츠를 인권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은 2000년 그라츠에서 개최된 인간안보, 인권 그리고 인간개발 세미나에서 그 싹을 틔웠는데, 이 세미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교육 및 연구센터’(European Training and European Research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 ETC)에서 인간 안보 네트워크를 위해 조직한 것이었다. PDHRE 창립회장인 술라미스 퀴니히는 그라츠를 유럽 최초의 인권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해 이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에서 전 오스트리아 외무부 장관인 베니타 페레레왈드너(Benita Ferrero-Waldner)는 그라츠가 인권도시가 될 것을 공표했다. 이 발표는 도시자체의 노력을 가속시켰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01년 2월 8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인권도시로서 그라츠의 발족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라츠는 이미 두 주요 정당인 사회민주당(Social-Democrat Party)과 민주당(People's Party)을 대표하는 알프레드 스팅글(Alfred Stingl) 시장과 헬무트 스트로블(Helmut Strobl) 문화고문이 추진한 다양한 인권 활동들 덕에 인권도시로 성장하기에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문화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들로 말미암아 그라츠는 오스트리아에서 “난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명성은 2008년 1월 치러진 시의회 선거에서 우파 정당들이 내건 반 이슬람과 반 이민자 슬로건으로 인해 다소 손상을 입었다. 그라츠 시민들이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열망은 1938년 11월 9일 수정의 밤(Reichskristallnacht : Night of Broken Glass)⁴⁰ 동안 친나치 조직원이 파괴한 그라츠 유대회당(synagogue)을 재건축하여 다시 문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그라츠는 종교 간의 소통의 장소로서 명성을 얻었다. 1997년에는 제2차 유럽에큐메니칼 회의(Second European Ecumenical Assembly), 2002년에는 불교칼라차크라

40) ‘수정의 밤’이란 회당과 상점의 깨진 유리조각들에 반사된 불빛이 반짝이는 수정을 연상시킨다 하여 유래된 용어이다.

(Kalachakra), 그리고 2004년에는 첫 번째 유럽이슬람종교지도자회의 등을 유치함으로써 그러한 명성을 이어갔다. 다양한 인권분야의 시민사회활동도 번성했다.

2000년에 그라즈대학교(University of Graz)와 협력하여 개설한 유럽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연구센터(ETC)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등의 분야에서의 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켰다.

인권도시 계획은 실행될 수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지지받을 수 있었다. 시장과 협력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는 2000년을 맞아 열성적으로 혁신적인 인권도시를 소개했다. 시의회는 지금보다는 덜 양극화된 정치 정당을 대표했기에 인권도시의 시작에 관한 기본적인 결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라즈 인권도시의 개발은 PDHRE이 제안한 모델을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을 대표하는 20명이 넘는 위원들로 구성됐다. 그라즈의 시민·정치·경제·사회권과 문화권과 관련된 상황을 잘 대변하고자 세 개의 실무그룹을 조직했다. 이 실무그룹은 2002년 5월 그라즈 인권상황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고 이 연구에 근거해 인권상황지표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그 결과 여섯 개의 주요 문제 분야가 확인되었다. 즉, 여성,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이주자, 노인과 사회적 약자의 요구가 그것이다. 이 연구 분석과 이와 연관된 행동계획을 널리 홍보했고, 후속작업을 위한 준거기준을 제공했다. 그라즈 ETC는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전체적인 절차를 기획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한 번도 행동계획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 결정을 여러 번 보류했던 점과 2002년 말 시의회의원 선거 때문이었다.

2002년 이후 운영위원회는 원래의 형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정치 환경의 변화와 시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덜 “공식적인(official)” 후원에 의존했다. 그러나, ETC와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조직들은 인권도시 내의 활동들을 꾸준히 실행했다. 2007년 4월, 오랜 기다림 끝에 이 도시는 설립초기 본래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시적이고 활동적인 인권기구로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를 설립했다. 현재 인권이사회는 하나의 운영위원회로 기능하고 있다.

그라츠의 주요한 문제들

그라츠 인권도시는 두 가지 주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새로운 소수자들의 통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동 및 청소년,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의 요구이다. 오스트리아에서 대중주의 정당(populist parties)이 성행했고, 이들 중 몇몇은 외국인 혐오와 이슬람 혐오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그라츠 시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극우주의와 이슬람 혐오의 문제를 시급히 다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도시에는 종교적 신념과 의견의 표현에서의 자유와 평등에 관해 일하는 기관들이 있다. 다른 중요한 문제는 성적 지향, 나이, 장애로 인한 차별, 직장에서 성별과 인종에 의한 차별, 그리고 건강, 교육, 주거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에서의 차별 문제와 유럽규제에 기반한 연방법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슈들이다. 2006년 시청에 사회 통합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신설되었는데, 현재 이 부서는 확장되고 있다. 동성애자 혐오와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들은 장차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인권이사회 활동 계획에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다뤄질 것이다. 그들의 아젠다에서 비차별과 동성애자 혐오 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성과

인권이사회는 영구 기관으로 인정되었다. 인권이사회는 그라츠 시의 지원 하에 주도적으로 계획을 시행한다. 25명의 구성원들은 두 우익 정당을 제외한(이중 하나의 정당은 여전히 위축될 여지는 있다) 모든 정당의 대표들을 포함한다. 또한, 이사회는 주로 개인의 역량에 기초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독립된 집단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섞어놓음으로써 기관들과 시민사회를 대표한다. 이사회는 일을 주선하고 조달하는 분야에서의 차별반대 활동들과 관련하여 이 도시의 규제들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그라츠시 기업들은 반드시 비차별 정책들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사회 통합과 관련하여, 법률과 정책은 통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그라츠는 2001년 인권도시로 선포된 이래로, 수많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천들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계획들을 모두 시행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위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흔히 그렇듯, 인권이라는 개념이 도시에 알려지자 단체들은 이러한 원칙하에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시민들의 인식과 인권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보했다.

그라츠가 유럽연합의 문화 수도로 지정되었을 때 개최된 기념행사기간 동안, ETC는 인권을 중심 주제로 한 수많은 참여 활동들을 주관함으로써 “인권문화” 프로젝트에 기여했다. "인권산책(Human Rights Walk)"은 도시 중심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과거의 인권 침해와 불의 혹은 훌륭한 인권관행과 연관된 다양한 장소를 둘러보았다. 산책 중 거치게 되는 흥미로운 장소로는 옛 유대인 거주지역(ghetto), 그리고 그라츠시에 청교도가 지배적이었을 당시 가톨릭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장소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인권산책 경로는 청교도들에게 당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관용법의 제정과 연관된 장소로 이어진다. 인권산책 동안 예전 유대교 회당이 파괴되고 그 장소에 아름답게 복구된 유대인 회당에 도착했을 때, 참가자들은 나치 치하의 암흑기도 회상하게 된다.

이러한 많은 활동들을 통합하는 주요 행사는 그라츠에서 열리는 지역 차원의 인권회의이다.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의 인권도시에서 온 PDHRE 활동가들은 그라츠 참가자들과 함께 그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다른 예로는 스티리아(Styria) 지역⁴¹⁾이 인권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 상금은 도시 주변의 가장 유명한 산책과 조깅 코스 중 하나를 따라 인권 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현재 세계 인권선언의 30개 조항이 새겨진 30개의 명판이 가로등 위에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는 행인과 조깅하는 사람들은 선언문의 각 조항을 떠올리게 된다.

그라츠에서 인권이 지역주민의 의식 수준으로 정착하게 된 또 다른 긍정적인 예로는 2005년 공표된 사형제를 반대하는 그라츠 선언이다. 이는 그라츠 출신의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가 주지사로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수 건의

41) ‘스티리아’는 오스트리아의 남동쪽 지역으로 이 지역의 수도가 그라츠(Graz)이다.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한 조치였다. 그라즈의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정당들의 항의로 그의 이름은 그라즈의 주경기장에서 지워졌다. 언론, 정당, NGO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쟁점들에 관한 그라즈의 인권에 대한 의견을 참고했다. 그래서 그라즈 시민들은 유럽에서 직접적인 인권침해로 규정된 사형제를 노골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지지할 수 없었다.

인권도시와 특히 ETC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교육 세미나와 워크숍을 조직함으로써 다른 인권도시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ETC는 2003년 이래로 인간 안보와 인권에 대한 하계강좌를 후원했다. 여기에서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인권도시들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라즈의 참가자들과 경험을 나누었다. 대화와 교류의 가능성은 인권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통합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2007년, 그라즈 시장은 개발 중인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의 인권도시 비학(Bihać)의 활동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달라는 ETC의 요청을 승인했다. 그라즈의 ETC는 그라즈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는 인권교육 세미나에 비학(Bihać)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을 초대했다. 이러한 종류의 지원과 인권도시들의 연대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미래 전망

2008년 1월 그라즈 시의회의 선거 결과, 인민당(보수)과 녹색당의 새로운 연합정부를 이루었다. 이 정당들은 연합정부를 만들고 인권도시를 지지하는 수많은 목표들, 예를 들어 그라즈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이민자들의 대통합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목표들을 포함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새로운 연합정부는 주거, 교육, 고용 등과 같은 많은 인권관련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우선 사항이 될 것이며,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구체적인 반차별 단체가 설립될 것이다. 난민신청자 혹은 일상적인 경제적 사유로 그라즈에 이주민들이 유입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집단들 보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은 아프리카와 터키 출신들이다. “이

주 이사회(Migrant Council)" 가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주 이사회는 다양한 민족의 이주자 집단들과 그들의 단체를 그라츠 당국 및 NGO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사회와 시청, NGO는 난민 지원과 사회통합분야의 수많은 계획을 이행하는데 협력한다. 자문서비스 활동 외에, 이렇게 결합된 조직들의 활동은 특히 공영주택과 사회적 서비스 접근과 관련한 비차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에 언급했듯이 그라츠는 종교간 회의와 유럽무슬림종교지도자들의 최초의 국제회의 후원자가 된 사례들, 그리고 불교신자들의 국제회의로 최근 특별한 관심을 얻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혐오와 무슬림 혐오를 둘러싸고 시민들을 양극화시키려는 우익 정당들의 시도에, 다른 정치 세력들은 특히 민감하게 대응했다.

그라츠의 학교들에서는 "폭력과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청소년(Youth Against Violence and Racism)" 이라 부르는 모임이 상당히 활성화되었다. 스티리아(Styria) 지역 전역의 젊은이들은 인권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장소들을 발견하고 있다.

인권도시로서 그라츠의 성공은 한편으로는 인권도시와 보다 일반적으로 인권이슈를 지지하는 정부의 지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이사회와 같은 기구들의 설립으로 강화된 인권에 대한 대중들의 각성에 기인한다.

2. 보스니아-헤르제코비나

배경

비학(Bihać)의 3년간의 포위는 1995년 11월 21일 보스니아 내전이 종식되기 몇 달 전에 종료되었다. 전쟁으로 도시의 역사적인 많은 건물들은 파괴되고, 사회기반 시설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심리적 외상을 받은 채 뿔뿔이 흩어졌다. 보스니아의 많은 도시들처럼, 비학은 수 세기동안 무슬림, 정교회 신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으로 구성된 인구 집단을 유지해왔다. 현재 10만 명 이상의 인구는 대부분 무슬림이며, 보스니아 민족인 이주자들이 보스니아-헤르제코비아의 다른 지

방과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에서 이주해왔다. 내전으로 국가는 과도기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대략 10년 이내에 유럽연합에 들어가려는 목표에 맞춰, 경제, 정부, 경찰(치안)과 유럽에서의 역할을 재조정하려고 시도했다. 우나-사나(Una-Sana) 주의 중심인 비학은 내전과 집단학살의 상처들이 아직 치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현실에 적응하는 데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

2006년 비학 시민이자 지역NGO인 노비 푸트(Nobi Put)의 이스크라 타바코빅(Iskra Tabakovic) 회장은 그라즈의 ETC가 조직한 사라예보의 인권세미나에 참석했다. 여기서 그녀는 인권도시와 그라즈의 경험을 배웠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인권도시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으며, 여성권익단체 글라스젠느(Glaszene)의 네이라 라코빅(Nejra Rakovic) 회장을 만났다. 같은 해 8월, 그들은 함께 비학에서 집중적인 워크숍을 조직했고 비학을 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서 PDHRE 뉴욕지부로부터 인권교육자들을 초청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인권도시의 발전

PDHRE 교육자들의 방문과 집중 연수를 통해 지역단체의 구성원들은 비학을 어떻게 인권도시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었다. 연수에 참여한 단체들의 다양성은 이 도시의 주요 관심사의 많은 부분을 보여준다. 참가한 단체들은 여성단체, 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단체, 의료산업종사자, 장애인, 아동권리옹호자, 전쟁참전용사, 경찰, 로마(Roma)소수민족, 법률가, 대학교수, 도시설계사를 포함했다. 비록 시 당국이 요청받은 공식적인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명의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들도 참가했다.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이익집단별로 나뉘어 인권에 따라 임의적으로 도시를 건설해보는 작업을 했다. 이 지역사회에서는 인권을 단지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많은 논의의 초점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의 현장과 지역적 중요성에 맞춰져 있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단체들은 인권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로마민족공동체 대표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소외당하고 학교, 주거, 심지어 공공장소의 접근을 거부당해온 방식에 대해 발언했다. 이러한 배제는 직업, 의사결정에의 참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빈곤한 삶의 나락으로까지 차례 차례 영향을 미쳤다. 다른 참가자들은 로마민족들로부터 그들이 비학에서 그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데 감사를 표했다. 비록 로마소수민족공동체가 긴 역사와 도시 내의 입지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 역사는 로마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타인들이 조작한 것이었다. 만약 워크숍이 단지 이러한 대화의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연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지역의 다른 긴급한 문제들 중에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직장 내 차별, 젊은이들의 교육과 취업의 기회, 보건, 종교에 대한 관용과 정치 참여 등이 있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가 현저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차후 운영위원회의 중점의제가 되었다.

운영위원회는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회의했다. 그러나, 기존 기획자들 중 한 명이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단체를 떠났을 때, 내부분열로 인해 이 새로 출범한 단체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비학은 상대적으로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도자들 간의 작은 불화도 그들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전체에 쉽게 파문을 불러일으킨다. 위원회는 그들 내부의 갈등을 해결해가면서 뉴욕에 있는 PDHRE 사무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비학의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지속했다.

위원회는 수많은 인권교육 워크숍을 주최했는데, 한 번은 비학 근처의 큰 규모의 로마민족공동체가 있는 루치카(Ruzika)에서 열렸다. 운영위원회의 로마공동체 대표들은 지역 내 관계를 개선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이 워크숍을 강하게 지지했다. 그들은 또한 루치카와 비학의 학교에서 소수민족의 인권에 대한 교육과정을 시작했다. 또 다른 성공적인 행사는 종교적 관용에 대한 지역포럼이었다. 위원회는 민감한 주제들을 공개토론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노력했는데, 침해 사례들을 분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공개토론 방식이 인권의 개념을 사용하여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국제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인권의식 개선을 시도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인권도시의 이념에 매료되었다. 12월 10일 젊은이들은 거리와 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고 즉석 토론들을 주도하고, 인권이 일상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실활동들을 조직하는 업무에 참가했다. 저녁 때 초청 연사들이 공개토론회를 주도하는 동안 젊은이들은 인권도시 지지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 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인권도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성과와 도전

인권도시의 조직위원회는 젊고 에너지가 넘친다. 여러 지역단체들이 이 운동을 후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조직위원회는 제한된 자원으로 일했고 대학이나 사라예보와 같이 먼 곳에 있는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최대한의 전문성을 구축하려고 한다. 위원회는 자금 부족으로 인한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계획한 진로에서 후퇴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역인권이슈들에 대한 공동체 포럼을 개최하고, 종교, 차별, 여성과 아동의 인권과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관여함으로써, 상당한 진보를 성취해 냈다.

지역과 그들의 목표를 진정 민주적으로 유지하고, 어떤 사회적 요소도 제외하지 않고, 정치적 중용을 지키기 위해, 업무를 천천히 진행해왔다. 정치적 독립성 이슈는 위원회 내부에서 격렬히 논쟁되었는데, 이는 몇몇 위원들은 특정 정당이나 지방정부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권도시 운동은 지방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모든 정당에 개방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적대적이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향후에 지방정부의 더욱 긴밀한 협력과 지지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

인권도시 그라즈는 매우 협조적이었고 특히 그라즈의 후원 NGO인 ETC의 협력이 두드러졌다. 그라즈는 그라즈에서 비학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

습을 후원하는 데 동의했다. 비학 주재 그라즈 명예 영사는 현재 운영위원회와 정기적으로 만나 두 도시 사이의 비공식 연락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라즈 시장은 교육기간에 그라즈를 방문하도록 비학의 시장을 초청했다.

비학의 인권도시 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시간, 휴가, 그리고 가족시간을 이용하여 인권도시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노력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전역에 인권교육을 확장시키기 위한 계획은 일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모여 운영가능한 활동들을 계속 촉진해왔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외로부터의 후원과 지방정부의 인정은 이주자들과 소수집단을 포함한 비학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자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실행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C. 라틴 아메리카의 인권도시

1. 아르헨티나

배경

로사리오(Rosario)는 1997년에 최초의 인권도시로 설립되었다. 이 도시의 인구는 100만 명 이상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 : 아르헨티나의 수도)에 이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이다. 파라나 강(Paraná River)에 위치해 있는 로사리오는 아르헨티나의 교통과 산업의 요지이다. 경제적·사회적 격변은 국가 전체에서 그랬듯 도시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지속된 군사독재기간 동안 로사리오의 수백 명의 시민들은 "실종되었다." 이에 대한 투쟁으로부터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며 많은 인권단체들이 생겨났다. 실종자의 어머니연합(Madres de plaza de Mayo)과 실종자의 할머니연합(Abuelas de Plaza de Majo), 인권연합(Asamblea de Derechos Humanos), 세계인권운동(Movimiento Ecumenico de Derechos Humanos)과 같은 단체들은 독재기간

동안 활동을 시작해 오늘날까지 지속하고 있다. 독재에 대항한 투쟁의 경험과 조직화의 도구와 정의를 주장하는 수단으로써 인권을 사용한 것은 인권도시로서 로사리오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다.

군사독재정권으로 로사리오는 정신적·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인 손상도 입었다. 독재정권 이후 출범한 정부들은 산업분야를 침체로 이끌었으며,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관행들로 1990년대 말까지 로사리오는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독재정권 이후의 전 기간 동안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상태가 되었다. 다른 지방으로부터 극빈층이 지속적으로 이주했으며, 1995년에는 실업률이 21%에 도달해 “실업의 수도”로 불렸다. 극심한 경제위기로 아르헨티나 전역에 폭력사태가 잇달았다. 정부는 독재정권의 잔재인 억압적인 방법으로 시위와 폭력을 진압했다. 독재정권은 극심한 경제적 상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영향, 즉 사회적 구조를 해체하는 사회적 관계를 정립했다. 통치는 시민 참여와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개인주의가 단결을 대체했고, 폭력이 모든 권력관계에 스며들었다.

가장 최근의 경제 위기는 달러에 고정되어 있었던 페소화의 가치가 전례 없이 하락하면서 2001년 12월 20일 정점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대통령인 페르난도 드 라 루아(Fernando de la Rúa)는 사퇴했고 국익에 보다 부합하는 경제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과 경제적 상황의 호전에 힘입어 로사리오의 상황도 아르헨티나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02년을 기점으로 나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실업률은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로사리오 시민 중 약 43만 명은 빈곤층 이하, 약 17만 명이 극빈층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많은 인권침해 사태들을 고착화시켰다. 특히 지방의 빈곤지역과 북쪽 지방으로부터의 국내 이주로 인해 판자촌(villa miseria)은 영국적인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특히 -토바(Qom-Toba) 주민들은 파라과이 근처의 국경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원주민 집단으로 사회적 배제와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었다.

인권 역사

아르헨티나는 1983년 민주주의 정권의 출범과 함께 주요 인권조약들을 비준했고 1994년에 헌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권리협약을 헌법에 통합했다. 헌법개정문에 9개의 조약들⁴²⁾과 2개의 선언들⁴³⁾이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인권 조약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행하고자 시도한 유일한 남아메리카 국가였으며, 여전히 그렇다.

인권은 암파로 조치(Amparo Action)를 통해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데, 이 암파로 조치는 권리를 침해하는 지방법에 관해 헌법적 구제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헌법의 무결성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비록 절차가 간편하고 매우 효과적이지만, 수백만 명의 시민들은 변화에 관한 이러한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모르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여러 기관들이 설립되었고 여성인권, 성적 다양성의 권리, 원주민의 권리, 자연권, 그리고 주거권 등을 포함한 인권을 주창하고 보호하는 사명을 가진 여타의 사회적 운동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인권의 영역을 운동의 일부 예로서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고, 가시성과 통합성을 주장했다.

42) 9개의 조약이란, 1)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4)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CPR), 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8)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9)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을 뜻한다.

43) 2개의 선언이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과 발전에 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을 뜻한다.

군사독재정권기간과 그 직후, 시민운동의 초점은 시민적·정치적 인권에 맞춰있었다. 그러나 독재정권이 실시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침해되었고 여전히 그 침해가 끝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는 인권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실현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인권을 위한 공공기관

국가는 시, 도, 국가적 수준의 민주적 기관을 점차적으로 설립하여 인권을 보장, 보호, 증진할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인권옴부즈만, 여성위원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인권 증진 정부부처, 소비자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그 예이다.

독재와 권위적인 정부와 투쟁해온 인권단체들과 여러 시민단체는 새로 출범한 국가기관들과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은 국가에 대한 투쟁을 통해 성장해왔다. 대부분의 경우 투쟁은 큰 위험을 감수하게 했으며, 단체들의 정치적 대화기법은 비판과 대립 중 하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진보적인 입장과 인권에 대한 반역으로 보일 수 있었다. 새로운 사고와 행동 방식, 제안서를 구상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것,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것, 의사결정자인 정치가와 국회의원이 새로운 계획이나 정책을 지지하도록 설득할만한 계획과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 등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민주주의로 전환해가는 길에서 많은 사회운동단체들에게 도전이 되었다.

로사리오 시와 인권운동 활동가들은 공식적인 인권 구제가 항상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지역적으로 인권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관해 힘들게 배워야만 했다. 몇몇 시청 공무원들은 인권프레임워크란 국제적 무대에 속한 것으로 지역 현실과는 어떤 관련성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인권을 오직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의무는 오로지 정부에만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모든 인권교육 프로그램

에서 중요한 사안인 사회의 모든 부문의 의무를 소개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비국가적 의무(non-state obligation)는 아르헨티나 국내법에 통합되면서 영향력 있는 개념이 되었다.

로사리오 인권도시는 인권에 관련한 의무들에 관해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느낀 것에서 출발했으며, 인권은 알려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했다. 이 전제에는 세 가지 중요한 함의가 있다. 첫 번째는 도시공무원들이 인권조약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데,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방과 도시 차원의 의무와도 관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도시를 포함해 이는 모든 차원에서 인권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행정부서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함의는 민간부문(회사, 기업, 언론)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자신들의 의무가 인권조약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함의는, 인권은 모두 잠재적 침해피해자들과 정부관계자들, 주로 경찰, 군대와 다른 잠재적 인권침해자 양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을 국민들의 의식수준으로 정착하기 위해, 이러한 함의들을 해석하는 방법과 의미는 아르헨티나의 최근 개발에 따른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 내에서 구상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로사리오 인권도시의 설립을 이끈 도전이 되었다.

인권도시 설립

젠더와 법·개발협회(Institute for Gender, Law and Development: INSGENAR)는 1994년부터 로사리오에서 인권과 여성권리 아젠다를 서로 연결하려고 노력해왔다. 이 기관의 지도자들은 모든 인권과 다른 사회적 운동 기구들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 전체적인 인권에 관한 접근을 향상시키고, 지역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에 대한 영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INSGENAR는 창립시점인 1995년 뉴욕에서 열린 제4차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준비회의에서 PDHRE와 만남을 통해

PDHRE와 연합하여 발달했다. INSGENAR은 1995년부터 PDHRE 라틴 아메리카 지역 본부가 되었다.

1997년 7월 30일 기념식에서, INSIENAR은 정부·비정부 기구들을 초청하여 로사리오를 첫 번째 인권도시로 만드는 협동계획에 협력하는 선언에 서명하도록 했다. 인권단체, 원주민단체, 성 소수자 단체, 학술기구, 개발협력기관, 여성단체 등 35개 이상의 조직과 기관들이 시청 강당에 모여 에르메스 비너(Hermes Binner) 로사리오 시장과 로사 아코스타(Rosa Acosta) 여성부 장관, 그리고 술라미스 퀴니흐 PDHRE 창립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협력선언서에 서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고 활동적인 단체들이지만, 첫 번째의 합의에서부터 인권도시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기까지는 일 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 선언서에 서명한 35개의 기관들 중, 현재 13개 조직만이 발전과정을 지도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는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다. INSGENAR은 이 계획의 원동력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 일은 민감한 사안이었다. 왜냐하면 인권도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는 자기 단체의 관심사를 넘어, 합의한 문제에 대해 기꺼이 일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권도시의 운영위원회는 정부, 비정부 조직들, 세 곳의 학술기구(법학대학과 정치학대학에 있는 두 곳의 인권센터들, 그리고 법대의 파울로 프레이리 연구소), 경찰학교, 지방정부의 인권부서, 시정부의 인권부서, 인권옴부즈만, 콤 토바(Qom Toba)지역대표들, 인권을 위한 범교파운동(Ecumenical Movement for Human Rights : MEDH), 젠더와 법·개발 협회, 인권 옹호를 위한 라틴 아메리칸과 캐리비안위원회의 로사리오 지부(Rosario Chapter of 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ommittee for the Defense of Human Rights : CLADEM), 그리고 건축가협회의 여성부서 등이 있다. 이 모든 기관들이 운영위원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여러 기관들이 운영위원회에 소속되고자 한다. 위원회와 소속 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으며 소속단체 간의 연합을 더 강화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새로운 단체가 가입할 때마다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온 공동사업(synergy)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전체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주로 긴장은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간에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경찰과 인권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그것이다. 운영위원회의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위원이 인권도시의 역사를 이해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수월히 담당할 수 있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는 서로 다른 단체의 성향을 잘 조화하는 것일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만나 활동과 개입에 관해 논쟁과 토론을 벌인다. 모든 참가자들, 더 나아가 모든 조직들이 인권도시의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는 동안, 자신들의 이념의 다양성과 다양한 배경과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언어와 인권프레임워크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다양성이 인권용어와 인권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을 풍부하게 해주었다.

모두에게 공통된 목표는 인권교육을 통해, 연령, 사회·경제적 배경, 민족출신, 종교, 그리고 여타의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도시주민의 인권존중을 제고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회영역에서 온 단체들이 토론하고 합의에 이르며, 로사리오의 일상생활에 진정한 인권문화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며, 태도 변화에 기초하여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란 힘겨운 일이다. 도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할 정부의 대표제와 역동성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로사리오 시민과 정부공무원들, 그리고 조직들의 의지를 촉발시켜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구성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비록 수고스러운 과정이라도, 실제로 운영위원회 소속 자격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새로운 활동가들이 항상 심사숙고한 생산적 논의와 동의에 기초하여 협력함으로써 위원회는 성장한다.

도시환경의 인권문화

인권도시는 인권문화를 조성하고 자신의 지역사회에 인권교육을 전파하는 인권교육자를 훈련함으로써 도시라는 공간에서 인권을 증진시킨다. 도시공간은 국가 및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 즉 문화, 역사,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 요소들의 축소판이다. 갈등과 긴장은 도시환경에서는 일반적인 풍경이다. 갈등의 영역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인권문화를 조성하는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갈등과 해결의 과정을 통해 역동적으로 일상을 재해석하도록 하고 인권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주요 문제들을 재구성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로사리오 운영위원회는 도시 환경 내에서 일어난 몇몇 긴급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를테면 “홍등가”의 지정 여부와 같은 사안이었다. 도시의 남쪽지역에는 성전환자와 동성애자, 성산업종사자들이 있었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 어떤 주민들은 이 사람들을 지역에서 내쫓고 싶어 했다. 아르헨티나가 비록 성매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자신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 홍등가를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매일 언론은 분쟁에 대한 뉴스를 보도했다. 제일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여성과 성전환자로 이러한 조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특히 비차별의 원칙하에 경찰과 종교 단체를 포함한 모든 위원들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위원회는 강제적 이동과 배제의 조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인권정책을 지지하는 정부의 장관들에게 이 성명서를 보냈고, 홍등가는 지정되지 않았다.

운영위원회는 몇 개의 중요한 영역에서의 전략적 기획을 포함하는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프로그램과 행동계획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관심들을 반영하고 있다.

인권도시에서 교육과 역량강화는 계속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위원회는 매년 교사, 보안군(security forces), 의료종사자, 판사, 전문가, 아동, 예술가, 언론 그리고 풀뿌리 단체들을 위해 두 달 동안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정부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분야가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도시운영에서 인권에 대한 접근이 어느 정도 정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경우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인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첫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로써 경찰학교는 인권을 경찰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관심을 유도하고 인권을 주장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에게 인권 조약을 새로 만들어보고 그림, 조각, 음악, 비디오 그리고 시와 같이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다시 써보도록 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세계인권선언과 세 가지 조약들, 즉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보았다. 수 백 개의 학교들이 도시 곳곳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공교육체제는 강력한 확산효과를 가져와서 행동 계획 상에 뚜렷하게 표시되었다.

초기부터 운영위원회는 로사리오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핵심임을 깨달았다. 식수와 배수, 산림화, 재활용, 주방정원을 만드는 것, 잉여공간의 사용 등과 같은 주요 문제가 또 다른 경연대회의 주제가 되었다. 이번에는 이웃 간 팀이 지역 환경을 변화시키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우승하는 팀에게는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했다. 이 경연대회는 지역 내의 의사소통과 협동을 촉진시켰다. 참가한 사람들은 서로 협의를 통해 건강한 환경이 무엇이고, 지역 내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안을 실행했다. 참가한 사람들이 협력관계를 맺고, 그들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며,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등의 일을 처음 해 보는 경우도 있었다. 경연대회 그 자체가 인권이 지역시민들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지를 배우면서 이웃과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가난은 오랫동안 지역 내에서 고립의 원인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 경제적 수단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권력과 연결도 없었다. 그 중에서도 로사리오에서 원주민 공동체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다. 시민의식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러한 장벽들을 철폐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장벽들을 없애기 위해, 인권도시는 원주민 마을

내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정책 입안자나 정부공무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인터뷰를 통해, 소년과 소녀들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 정책입안자들과 정부공무원들과 토론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빈민지역 여성들은 참여적 모니터링 실천안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권과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고문금지협약 하에 고문 및 여타 비인간적인 잔혹행위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운영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이 팀은 빈민지역 여성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폭로했다. 참여적 연구방법을 통해 성이나 출산 관련 의료시설을 찾는 여성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300명의 여성들이 이러한 확대를 고발하는 인권보고서 작성에 참가했으며, 이 보고서는 발간되어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다. 운영위원회의 한 위원은 인권옴부즈만 사무실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인권옴부즈만은 복지부 장관에게 모든 의료업 종사자들에게 인권, 비차별, 그리고 성적 평등에 대해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더 나아가 의대학장은 건강과 인권 과목을 필수교육과정에 편입시키고, 성, 건강, 인권에 관한 감시기관(Observatory on Gender, Health and Human Rights)을 만들어 두 명의 운영위원회 소속위원이 운영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여성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자신들이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적절한 보건의 자선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인권임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권교육자 단체의 형성

인권교육자 교육은 2004년부터 로사리오에서 활동을 시작한 도시지역의 인권학습을 위한 라틴 아메리카프로그램(Latin American Program for Human Rights Learning in the Urban Space)이 책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변화 과정에서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들 중 선발된 남성과 여성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다. 첫 번째 활동은 2004년 7월, 로사리오에서 열린 국제인권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Human Rights)였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14개 국가에

서 참여한 젊은 남녀 참가자들은 세미나 후에 인권교육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와 교육자료, 그리고 문건들을 출간하고 정기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활동들을 공지한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nfoderechos.org/>.

이 프로그램은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그리고 상호의존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지식, 향유 및 인권의 원칙과 가치와 젠더 관점을 존중하는데 기반을 둔 문화를 구축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응답한다. 차별을 가시화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필요들을 정부의 자선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인권으로 여기고 정의해야 함을 고려한다. 사람들은 자선의 “수혜자”에서 “권리주체”로 변해야 한다. 이 변화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재정기구나 언론, 민간부분의 구성원들의 언어와 개념들, 정책들, 그리고 프로그램에 스며들어야 한다. 이것이 로사리오에서 인권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이며 인권교육자들이 의미하는 도전인 것이다.

로사리오 인권도시는 포르투갈의 사회학자인 보나벤투라 드 수사 산토스(Bonaventura de Sousa Santos)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자아정체성과 비차별에 관한 그의 생각들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드 수사는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 때 우리는 평등해질 권리가 있고, 우리들의 평등성이 우리의 특성을 없앤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로사리오 인권도시는 차이점을 재창조하는 평등성, 그리고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양산하지 않는 차이점을 증진한다.

업적들을 정리하며

여러 해 동안의 노고로 로사리오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결과들과 변화들이 지금에서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의 과도한 총기사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졌고, 인권이 경찰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됐으며, 성추행 사건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인권옹호자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이 있었다.

인권교육 이전에 콤 토바(Qom Toba) 원주민지역사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그들을 대변해주는 것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운영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북부지방에서 이주해 온 원주민으로서 받는 차별에 관해 자신들의 목소리로 직접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 내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하라는 요구가 있고나서 몇 년 후, 로사리오에는 현재 시정부의 한 부서로서 인권국(Office of Secretary of Human Rights)을 설치했다. 수백 명의 학생, 교사, 경찰, 의료업종사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인권교육을 받았다.

성과 출산의 의료서비스 기관에서 여성에 대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의 사건 발생률은 그 감시기구로서 <성과 건강, 인권감시기관>이 생긴 이래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마취 없이 의학적 낙태를 감행하는 것과 같은 고문의 사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오늘 날 인권도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공공장소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차별의 원칙을 촉진하는 것이다.

로사리오 인권도시는 단순한 프로그램 그 이상이다. 이것은 함께하는 꿈이요, 희망이며 도전이자, 깊은 확신과 확고한 헌신이다. 로사리오에는 특히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인권도시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모델을 재차 만들어내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로사리오에는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 그리고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의 여러 도시들에서 유사한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브라질

배경

인권도시가 뿌리내린 모든 도시 중에서, 리오 그란데 도 설(Rio Grande do Sul)의 지방의 포르토 알레그레(Porto Alegre)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4백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이 도시는 브라질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기차고 발전하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19세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독립운동이 확산될 때, 리오 그란데 도 설

지방은 자체적으로 독립공화국임을 선포했다. 비록 그들의 이런 시도는 십년 후에 패배했지만, 그 자주성과 독립 원칙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그대로 녹아 있다.

다섯 개의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세워진 포르토 알레그레는 제조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유럽인들의 지속적인 이주로 18세기에 첫 포르투갈인들이, 그리고 19세기에는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인들이 이주해 이 도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급속히 산업화되는 유럽에서 이주한 독일인들은 노동시장에서 끈기 있는 노동의 전통을 심었다.

포르투갈인들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미국으로 강제이주당한 아프리카 노예들은 미국 인디언들과 결혼했다. 현재 그들의 후손들이 지역 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

NGO는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네 번이나 개최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의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NGO는 인권옹호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이 지방정부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노동에 관한 이념이 시민들의 기대와 정부의 행동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지방정부는 참여민주주의의 모델로써 자주 언급되어 왔다. 참여적 도시예산이란 도시 전역의 시민들이 모여 공공사업과 서비스를 위한 예산분배를 제안하는 한 과정으로서, 1989년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시작되었다. 비록 몇몇 학자와 비평가들은 이러한 제안이 정부의 이행에 강제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 모델이 아직도 진행 중임을 고려해 볼 때, 시민의 참여에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인권도시 개발

포르토 알레그레에 인권도시 모델을 소개한 것은 지역의 한 여성운동 단체인 테마스(Themis)의 지도자와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여성운동단체인 INSGENAR를 탄생시킨 인권도시 설립자간의 회의였다. 로사리오의 긍정적인 결과를 지켜보면서, 테마스 지도자들은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운동을 시작했다.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여성운동의 관점이 확장되었다. 현재 핵심 구성원들에는 사법제도에 대한 재소자들의 접근에 관심을 가진 단체, 청소년단체, 흑인노동자단체뿐만 아니라 교사, 심리학자, 종교와 노동계지도자들과 같은 여러 개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2004년 11월 포트 알레그레를 인권도시로 만들 때, 시 지방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곧 행정부와 다수정당이 교체되었다. 정부가 교체되면서 이 계획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줄어들었다. 그 다음 해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6년, 운영위원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아 지역대표, 활동가, 그리고 정당대표자들과 함께 일련의 회의를 조직했다.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로서 인종 및 성차별, 여성, 아동, 노인에 대한 가정폭력, 그리고 경찰의 폭력을 꼽았다. 의회에 여성, 흑인, 원주민 의석의 부족이 인권을 실현하는데 주요한 장애물임을 깨달았다. 평등과 비차별은 법으로 보호되지만, 일반인들이 그러한 법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동하려면 심층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호텔이나 상업 관련 직종의 구인광고란에서 “지원자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좋은 용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광고문을 본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마지막 문구가 함의하는 기준이 “흑인은 지원할 필요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위원회는 차별받는 집단들이 의회에 그들을 대표할 의원을 갖지 않는 이상 정의를 찾기 힘들다고 보고, 인권활동을 하는 NGO들과 연대를 통해 이 일이 실현될 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했다.

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지역사회와 도시의 선거구에서 인권교육을 계속 실시했고, 정보를 나누는 회의를 개최했다. 그 중 최고의 행사는 하루 동안 열린 교육잔치인 모스트라(Mostra)로써 중앙시장에서 열렸다. 많은 지역인권단체가 인권이란 일상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정보들을 확산시켰다. 인권잔치에 이어 위원회는 유엔밀레니움개발목표와 관련해 열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정보와 교육과정을 열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성공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권과 자신들의 이웃의 문제들, 즉 물, 안전, 깨끗한 공기, 보건과 일자리에의 접근 등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또한 그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에 대해 서로 토론하기 시작했다.

도전과제

모스트라와 밀레니엄개발목표 회의의 성공 이후, 운영위원회는 젊은 사람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인권에 관한 수기 공모전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도시정부는 처음엔 후원을 약속했지만, 운영위원회는 결국 어떤 재정적 도움도 받지 못했다. 2005년 노동당이 교체된 후 시당국의 지원 결여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운영위원회가 지역행정부 외부에 강력한 기반을 만들어 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운영위원회의 소속자격을 확대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재정 충당 방식과 공간 확보에 의존했다. 참가한 NGO들은 인권도시 프로그램이 아무런 재정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권도시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다. 대부분의 사회기관들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제공했다. 인권교육은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보여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운영위원회는, 인권은 시민들에게 놀이터를 지을 에너지를 주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자원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놀이터를 짓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재정지원처에게 확신시키기 어려웠다.

게다가, 테미스의 기관장이 떠나고 새로 부임한 기관장은 인권도시의 중점적인 후원이 계속될 것인지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행정을 위한 공간과 회의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최소한의 자원 확보와 운영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지역사회 활동으로써 인권교육과 훈련이나 지역기반의 인권워크숍은 거의 중단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비록 NGO들 간의 조직회의는 열렸지만, 어떤 한 기관도 어떤 프로젝트나 캠페인을 끝까지 완료해 낼 수 있는 인력이나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포르토 알레그레 인권도시는 2008년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도시개발에 관한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Development of Cities)에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의 인권도시 대표들과 함께 참석했다. 브라질과 여러 남미국가들에서 실시된 워크숍과 교육의 성공과 시당국의 환기된 관심들이 포르토 알레그레 인권도시 운영위원

회의 힘을 복돋워 주었다. 운영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은 그냥 놔두기엔 너무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다른 회의들을 조직하고 재정자원과 프로그램의 쇄신을 주장했다.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이 있다. 즉, 인권도시 개념은 중요하고 노동집약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재정적 지원 없이, 그리고 영향력 있는 NGO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시정부는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처이다. 왜냐하면 시정부가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민간기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틴 아메리카를 넘어서

로사리오에서 만들어진 인권도시 모형의 강점과 이에 대한 존경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도시들에서 이 프로그램을 배우고자 하는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칠레, 콜롬비아, 그리고 볼리비아의 도시들은 인권도시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확장해 가는 것에 오직 한 가지 장애물은 재정부족이다. PDHRE와 인권도시는, 인권도시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사회가 조직하고 훈련하고 자원을 준비하고 행동계획을 실행하는 데, 상당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신적인 자원봉사형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최소한의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모든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D. 북미의 인권도시

북미에서 인권도시들을 설립하는 일은 다른 지역보다 몇 가지 이유에서 더 어려웠다. 첫째, 이곳에서는 지역수준에서 그리고 국가수준에서, 시민을 움직이게 하는 개념으로서의 인권과 실천적 도구로서의 인권개념이 다른 곳에서처럼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인권을 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이해한다. 단지, 최근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의 견지에서 경제·사회

그리고 문화적 필요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 동안 계속되고 있는 하나의 예외는, 원주민들과 최초 이주자들이 지역정부의 통로를 통해서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자, 뉴욕과 제네바에 있는 유엔의 인권형식에 맞추어 자신들의 주장을 펴온 방식이다. 또 다른 예는, 미국 내의 인종분리에 대항한 시민권리 운동으로, 주택, 교육, 노동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헌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권리가 사법적, 행정적으로 집행되는 기회가 정교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인권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권의 언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판단기준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

1. 캐나다

역사와 배경

캐나다 앨버타(Alberta)주의 에드먼튼(Edmonton) 인권도시는 북미의 첫 번째 인권도시로서 지속되고 있다. 그 이전에 아이오와시(Iowa City)와 멤피스(Memphis)를 인권도시로 만들려는 계획은 재정과 지도력의 부재로 실패했다.

에드먼튼이 메트로폴리탄 지역과 앨버타 주의 중심도시로서 백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큰 도시라는 사실은, 유리한 점이 많은 만큼 도전과제도 내재해 있음을 말한다. 석유화학산업이 번창하고 고기술 인력시장이 성장하는 에드먼튼은 국내외 이주민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다. 한때 황폐했던 시내 중심은 다시 복원되었고, 교외 지역의 지역사회는 새로운 노동자와 경제와 교육의 기회를 찾아 온 사람들로 인구가 늘어가면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에드먼튼은 캐나다 원주민의 인구도 상당하면서 이주자들이 세운 도시이기도 하다. 이 도시에는 공익단체들과 NGO들이 많이 있으며, 개인이던 기관 수준이던 세계 여러 분야와 견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참여는 선진국들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에드먼튼은 교육과 배움에 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에드먼튼은 앨버타대학교(University of Alberta)를 비롯하여 일곱

개의 고등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는 교육중심지이다.

에드먼튼은 적어도 12,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원주민의 문화와 이주민의 문화 간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역학관계는 계속해서 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주민 문화가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규범을 강요함에 따라, 원주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다. 초기 정착자들은 원주민들의 땅과 정체성, 그리고 존엄성을 짓밟고, 아이들을 가족으로부터 떼어내어 강제로 종교기숙학교에 집어넣음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감정마저도 짓밟는 등, 최초의 국가(First Nations)를 체계적으로 절멸시키는 일에 관여했다. 5년 임기의 진실과 화해국가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가 이주민들과 캐나다 원주민들 간의 계속되는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캐나다의 국내적 담화에서 이주민 문화를 영국과 프랑스 ‘두 개의 설립 국가(two founding nations)’의 문화라고 묘사했다. 2006년 인구통계에서는 에드먼튼 시민들의 8% 이하가 순수 영국인이거나 프랑스인이었으며, 백 십만의 도시인구 중 92%가 다른 출신이거나 혼혈이었다.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듯이 다원주의, 포괄성, 그리고 다양한 민족 출신이 앨버타 지방을 명확히 특징짓는다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 에드먼튼의 이주자와 원주민의 공존과 더불어 국제적인 시각, 국민의 세계주의, 풍부한 경험 등, 이 모든 것이 인권도시의 프레임워크를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시도로 만든다.

인권도시로서 에드먼튼의 시작

인권도시 개념을 에드먼튼에 소개한 사람은, 2002년 9월, 에드먼튼에서 열린 인권 회의에서 캐나다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이자 PDHRE 이사회 위원인 월터 리켄(Walther Lichem)이다. 그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 개념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인권도시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화답으로써 그는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다음 해 리켄 대사는 앨버타대학교 교환교수로서 이 개념을 열정적으로 추진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3년 4월 2일, 평화와 인권을 위한 존 험프리센터

(John Humphrey Center for Peace and Human Rights : JHC)의 추진으로 에드먼튼을 인권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이 기획이 출범하게 되었다. 제1단계(Phase I)는 에드먼튼 시민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영역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타당성 연구에 나타난 문제들은 소외집단이 경험하는 가난과 배척의 문제, 계속해서 사용되고 지각되는 민족적·인종적 편견, 그리고 에드먼튼 전체 시민이 훈련해야 할 소양으로 좀 더 나은 이해와 공감의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제2단계(Phase II)는 인권학습과 행동과정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행위원회가 이 과정을 지도하도록 임명되었다. 인권도시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민들의 요구와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차례의 중점집단(focus group)회의를 열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행동계획의 토대가 되었다. 집중집단 토론에 참여한 참가자들로부터 얻은 중요한 제안점들은 다음의 네 가지의 요구로 정리된다. 첫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증진하여 인권 쟁점들에 대해 조직들과 단체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인권학습을 전 지역사회와 조직들로 확산시켜 모든 시민들이 인권에 관해 알고 그리고 인권도시에 활발히 참여하게 하는 것, 셋째 소외되고 종종 “자기 목소리가 없는(voiceless)” 사람들을 위한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인권도시 계획을 세우고 지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인권도시의 중심이 될 곳에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을 제공하여 그것이 에드먼튼이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실행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할 것 등이다.

행동계획은 에드먼튼에서 지속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는데, 이는 전환적 인권학습(시민들 사이에 발달하는 자각과 공감으로서 태도와 행동의 변화과정)을 수반할 지역사회 기반 연구를 포함한다. 기관, 단체, 이웃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강화하는 것은 상호지원과 연대감을 증진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계획은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다루었다. 에드먼튼의 상황이 변화함으로써 인권학습의 새로운 출발지점이 생겨났다. 이는 학습과 대화의 역동적 과정으로 보인다.

중점집단 토론과 문헌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는 2006년 봄에 온라인으로 인권도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역 기관들인 언론 네트워크들과 이해

관련자들은 이 조사를 널리 시행하도록 했다. 이 조사가 통계학적으로 에드먼튼 인구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리라는 환상은 없었지만, 이것은 좋은 출발점을 보여주었다. 한 가지 예로써, 중점집단토론에서 다루지 않은 지역사회 집단에 대해 190개의 설문조사응답을 받았고, 또 하나는 공공연하게 말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었다.

인권에 대한 도전에 직면함

에드먼튼과 앨버타에서는 번성하는 경제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연구와 측정결과들은 특정 집단들이 지역 내 다른 사람들에게겐 보장된 사회적·경제적 자원들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증거에서 원주민들은 그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서로 연관된 여러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했다. 원주민들은 좋은 교육과 직장, 적절한 주거환경,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으며, 이들은 경찰과 공식·비공식 권력기관의 학대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사회 위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으로 지각했다. 게다가, 가정폭력 비율도 원주민 여성과 아동들은 다른 시민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역사적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그들의 문화를 거부당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회복 절차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한 가지 끔찍한 예는 원주민 아동들을 종교단체들이 주로 운영한 기숙학교에 강제로 수용시킨 것이다. 원주민 아동들은 그들의 부모와 강제로 헤어져 고향을 떠나야 했고, 주로 보육소에 머물며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는 명분하에 자신들의 언어와 관습을 부정당했다. 이는 그들을 더욱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것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이 학교들은 1970년 후반에서야 해체되었으며, 1962년이 되어서야 원주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한 가지 진전은 2008년 6월 11일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수상이 사회구조가 저지른 심각한 불의와 고통에 대해 사과한 점이다. 2008년에는 이런 학대들을 조사할 5년간의 위임을 받은 진실과 화해 국가위원회가 출범했다. 한 조사 응답자는 주거에 대한 접근성을 이야기하면서, 험박, 인종차별, 차별이 남긴 잔재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집을 구할 때 여전히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집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저의 출신때문에 차별한다는 것을 압니다. 전 매우 화가 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주민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주자들과 가시적인 소수집단들 역시 차별적 관행으로 고통받는다. 기초교육만 받은 이민자들이나 아랍이나 무슬림 출신 사람들은 인종조사(racial profiling)로 고통받고 있다. 많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영속적인 사회 하위층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받지 못했기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만 구할 수 있고, 주거, 일, 교육, 음식, 보건의 권리와 같은 요구들에 접근을 힘들게 하는 악순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랍이나 무슬림 출신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출신민족조사가 우리의 보안절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는 우리의 고용문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다른 일반적 사회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라고 적시했다. 이주민 사회에서 여성들은 인종에서 뿐만 아니라 성별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고 느꼈다.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노년층, 장애인 역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 성산업 여성종사자들에게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희생자라기보다는 가해자로 분류되고 그들의 노동의 특성상 소외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히 불리하다고 느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장애가 불리일으키는 소외와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서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고정관념이 문제였다. 장애로 인한 비용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더 큰 장애가 된다. 특히, 설문조사는 건축가와 도시계획가가 도시계획에 장애인들의 인권개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집단들 중에는 위협에 처한 청소년과 아동, 동성애자 커뮤니티(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와 퀴어), 그리고 노년층과 노숙자가 있다. 설문조사는 또한 경찰들이 용의자를 다룰 때 불필요한 언어폭력과 물

리적 확대를 사용하는 많은 경우를 보고했다.

에드먼튼은 여러 해 동안 역동적이고 참여적인 시민들 덕분에 알려졌다. 수십 개의 조직들이 다양한 인권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끔은 함께 일하기도 하지만 주로 각자 일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 인권계획의 “바구니(basket)” 를 만드는 것이 서로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시너지와 협력, 파트너십과 협동관계를 만들어내어 전체적인 인권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정의하고 추구하게 된다. 인권교육을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확장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함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일해 왔음을 이해하게 하고, 좀 더 큰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활동과 프로그램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설계훈련(mapping exercise)은 또한 지역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어떤 집단들이 발언권이 없고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성산업종사자들과 위협에 처한 청소년들과 같이 어떤 집단의 문제를 인권이슈로 정의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행동은 자선에서 존엄성을 찾는 것으로 변화한다.

행동과 발달

인권규범은 헌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권침해 모델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인권도시를 통해 사람들은 증상을 완화하고 교정하는 것 보다는 인권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체적인 인권관점을 통해 인권 이슈를 들여다봄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권규범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노숙자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기보다는 관련기구를 통해 능력을 배양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로 본다. 교육, 취업훈련, 음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서비스들을 인권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생활의 필수요건들을 인권으로 여길 때, 그들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된다. 인권을 실현한다는 견지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것이 정책적인 수준을 포함하여 해결책을 찾는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다. 연구결과와 권

고사항에 보고한 설계훈련은 모든 유관 기관에 널리 알려졌다. 100개가 넘는 지역 단체들이 이러한 훈련을 실시했고, 이는 단체의 지도자들의 인권학습에 일조했다.

시정부와 정당들,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들은 계속해서 인권도시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그들은 인권도시를 자생적인 프로젝트로써 어떤 누구의 소유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들 기관은 인권도시 연간 보고서를 받아보고, 계획수립 시 이를 계획의 한 부분으로 고려했다.

에드먼튼 인권도시와 존 험프리센터는 인권학습 향상을 목표로 하는 수많은 활동을 수행했다. 2007년과 2008년에 두 번의 인권교육자 훈련프로그램이 열렸다. 2008년 4월에 열린 두 번째 훈련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기관과 기구들, 공기관과 사조직들이, PDHRE의 24개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각자의 조직에서 인권교육자가 되겠다는 동의하에 참여했다. 이러한 세미나들은 전체적인 인권 접근에서 지역 기반의 교육자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 훈련세미나는 인권도시 프로젝트의 가장 집중적인 학습활동이다. 다른 지역조직들과 협동하는 것은 에드먼튼 시민 사회의 넓은 스펙트럼 전반에서 인권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원주민단체, 동성애자커뮤니티, 위협에 처한 청소년과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행사를 조직했다. 이러한 단체의 이야기들은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인권의식을 나타내는 행사들에서 주목을 받았다. 다른 행사들은 인종차별 및 주거권과 관련한 인권관점에 중점을 두었다. 연계행사로써 '인권도시상'은 인권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2007년 8월 유엔세계청소년모임이 에드먼튼에서 열렸다. 인권도시는 인권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둔 행사들을 후원했으며, PDHRE 창립회장인 솔라미스 퀴니호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인권도시의 젊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데 굉장히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꾸준히 이 기획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실행해온 젊은 사람로부터 프로그램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학교나 대학과 협력은 확산과 학습전략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권도시의 모든 시내의 학교에 세계인권선언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들과는 교육과정에 인권을 포함시키고, 대학들과는 지역서비스 학습 프로젝트 (Community Service Learning Project)에서 앨버타대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성매매

산업을 지역 내 문제로 제기한 프로젝트와 같이 인권을 연구에 통합시키는 것을 두려웠다.

시청각 매체와 활자매체와의 인터뷰 같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과 인권 도시 프로젝트를 “상표화(branding)” 하는 것이 2006년 이후 상시적인 활동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고 있다. 인권도시는 에드먼튼 인권도시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랜트 맥이완대학(Grant MacEwan College)의 디자인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창작대회를 후원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humanrightscity.ca/>로 등록되었고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에드먼튼 인권도시의 운영위원회 대표들은 국내·외 행사에 초대되어 에드먼튼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그 활동의 반경은 중국, 오스트리아, 아프리카, 미국에서 이뤄진 행사들을 포함했다.

행동계획에 녹아있는 지도원칙은 인권의식과 인권에 대한 각성을 모든 도시 활동들에 통합하는 것이다. 또 다른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 에드먼튼 프로젝트와 존 험프리센터의 구성원들은, 시민들이 이 도시를 마음속에 그려 보는 방식과 행동방식의 발전을 이끌어, 인권이 계획과 의사결정의 모든 측면과 도시의 모든 관심사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신들의 역할로 보고 있다.

배운 교훈들

존 험프리센터가 만든 가장 최근 보고서의 요약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에드먼튼 인권도시 프로젝트는 야심찬 시도로써 지역사회 안으로 깊이 뿌리내리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지역사회 내에서 빨리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압력이다. 이는 우리가 일하는 지역사회나 프로젝트의 이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다. 프로젝트는 장기적 안목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프로젝트들과 중첩되거나 중복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지역사회를 인권도시 절차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웠다.”

저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성과들을 언급했다. 첫 번째는 실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핵심적인 지도자 집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역 내에 뛰어난 “파문효과(ripple effect)” 를 가져온 성공적인 인권교육자 훈련프로그램을 인용했다. 청소년리더십 프로그램(Youth Leadership Program)은 더욱 인권을 이해하고 활동하기 위한 기초로서, 지역 내 문제에 중점을 둔 청소년 집단을 참여시킨 첫 번째 시도로 기술되었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살아 있는 실재로 만들었다” 고 저자들은 설명한다.

2. 미국

미국에 인권도시를 설립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다. 공공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들은 지속되지 못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의 채플힐(Chapel Hill), 매사추세츠의 캠브리지(Cambridge), 조지아의 아틀란타(Atlanta)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Oakland)가 이 운동에 참가할 방법을 심각하게 모색하고 있다. 콜롬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 : D.C.)에 프로그램이 소개되고 나서야 실체가 있는 프로그램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배경

워싱턴 D.C.는 극명한 대조와 불일치가 있는 도시이다. 연방정부의 중심지와 국제적인 허브로써 일주일간의 유동인구가 백만 명이 넘으며, 그중 절반 이하만이 영구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 시의 영구 거주자들 중 50% 이상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독특한 상황이자 거주자를 가장 괴롭히는 상황은 연방정부 수준에서 그들의 대표자가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어떤 주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행정구역으로서,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상원의원을 선출할 수 없고 의결권이 없는 하원의원만 둘 수 있다. 즉, 이 시의 거주자들은 의결권이 있는 대표가 없는 것이다. 실업률은 국내 평균보다 낮고 범죄와 폭력사건 발생률이

매우 높아, 워싱턴은 미국 대도시 중 범죄율 7위의 도시로 기록되고 있다. 점점 증가하는 학생들이 정부의 공립학교지원금을 받지만 자율적으로 공립자율학교에 지원하면서 공교육체제는 혼란 상태에 빠졌다. 공립자율학교들은 학생들이 어떤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이기만 한다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워싱턴 D.C.를 청소년의 참여를 필두로 하는 인권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한 국제재단이 PDHRE 인권도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2007년 PDHRE에서 온 교육자들은 지역사회교육자, 지역사회지도자, 사회정의와 청소년단체들,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혹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회의를 시작했다.

인권도시 개발

워싱턴의 인권도시 프로그램은 여전히 형성 단계에 있다.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진행을 느리게 만들었다. 첫째, 시정부나 후원기관이 프로그램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가 처음이었다. 이는 청소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출발점을 찾고, 지역적 환경을 이해하며, 적합하고 자발적인 파트너들을 찾기 위해 해야 할 너무도 많은 사전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는 청소년들과 일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시간적 한계(많은 청소년들이 일을 갖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었다)때문에 제한되었다. PDHRE는 인권학습과 훈련을 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부분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편입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고, 교육과정에 그저 하나를 덧붙임으로써 불명확한 범주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D.C. 내의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많은 정보포럼들과 지역 확산 프로그램들이 2007년에 실행되었는데, 이는 15세~18세를 위한 자발적 방과 후 활동으로 했던 여러 인권교육 프로그램들과 같이 열렸다. 프로그램은 결국 안정적으로 지속되었고,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는 국제 NGO로서 미국친우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의 지역장인 진-루이스 페타 이카마바나(Jean-Louis Peta Ikamabana)가 책임을 맡은 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

다. AFSC는 젊은 사람들과 일해 본 풍부한 경험과 국제적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PDHRE의 원조 하에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이 도시 전 지역의 학교에서 비공식 모임을 가지고 잠재적인 학생 참가자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통합교육과정의 하나로 지역 내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 이후, 우리가 만난 청소년들은 학습 프로그램 활동에 이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은 인권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고, 인권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D.C.내의 다양한 구역과 학교에서 온 거주자로 구성된 35명의 청소년 집단이 인권교육과 청소년의 우선적 필요사항,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에 관해 토론하는 캠프에 3일 동안 초청됐다. 이 집단은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숙고할 때 그 맥락으로서 전체로서의 인권모형을 배웠다. 다양한 제안들 중에,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이슈로 이민, 교육 그리고 길거리 폭력 등을 선택했다. 참가자들은 인권용어로 이 이슈들의 프레임워크를 짜고 사회경제문화권을 포함하여 어떻게 인권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이슈에 대하여 약간의 개인적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모든 D.C. 거주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반영했고 이는 많은 경우 점점 벌어지는 경제적 격차와 연관되어 있었다. 다른 곳에서처럼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고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이민자들이 겪는 문제에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는 행동계획의 기초로 발전했다.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연이은 회의에서 청소년들은 인권도시로서의 워싱턴 D.C.의 비전을 설명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인권과 교육상담 시의원 및 다른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대화와 정보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 초반에 청소년위원회에게 조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성인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역기관들과 모임이 개최되었고, 두 번째 위원회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회정의, 인권 및 대학 기관들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 그

들은 학생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기 위해 동일한 아젠다를 만들었다.

시청은 D.C. 공립학교 안에서 일하는 것을 승인했고, 이는 인권도시 계획을 학교 안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인권학습을 봉사활동에 통합하는 것은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을 봉사학습에 통합하는 것은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므로, 참가자들은 교육 시스템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에 입각하여 참여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장점은 봉사학습 프로그램이 주로 학생 중심으로 그리고 참여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인권학습의 교육이론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전망

워싱턴 D.C.에서 인권도시의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대한 폭 넓은 함의를 지니는 것이다. 청소년들(그리고 동반한 어른들)이 인권이 사회, 경제, 문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사실은 인권을 시민, 정치적 권리로 인식하는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이 인권의 용어로 그들의 도시와 그들의 관심에 관해 토론하기 위해 함께 자리한다는 것은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온 사람들과의 협력과 대화를 촉진한다. D.C.의 지역사회들 간의 청소년층의 대화를 발전시키고 인권학습을 함양함으로써, 청소년과 그들의 성인 멘토들은 도시 거주자와 시민들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재정의하게 될 것이다. 이 접근은 미국 내의 다른 도시들에게도 강력한 모델이 될 것이다.

E. 세계 전역의 인권도시

인권도시가 인도의 낙푸르(Nagpur), 필리핀의 아브라 지방(Abra Province)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낙푸르는 지역NGO들과 시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생기 넘치고 활발한 지역사회로 발전했다. 그들 활동의 중점은 토지개혁과 여성의 권리, 그리고 종교간 화합이었다. 비록 시정부가 이 운동에 더 이상 직접적

으로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도, 다양한 기관과 연합체들은 낙푸르의 인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아브라 지방은 루손(Luzon) 북서쪽에 위치한 산악지대에 있다. 인구는 주로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브라에서의 활동은 일 년에 여러 차례 지역의 마을을 방문하는 마닐라의 인권교육자들이 지도했다. 몇몇 훈련과 학습활동은 성공적이었지만, 인권도시 설립을 위해 장거리 접근방식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고, 프로그램은 지역 전통과 지도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아브라의 사람들이 인권도시의 주인의식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점으로써, 이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인권도시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 요구, 창조적인 상상에 기반하여 건설된다. 외부로부터의 좋은 의도도 지역 내의 주도력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인권도시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요청은 많다. 인권프레임워크는 윤리적·법적 규범을 제시하는 일련의 기준들 하에서 다양한 관심을 통합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한다. 도시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도시 경계선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이고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든다. 지구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이주, 기후변화, 자원의 부족과 같은 이슈가 전 지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과 그것들의 결과가 지역 수준에 미치는 방식을 자각하고 있다. 인권은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함께 일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벽을 쌓는 대신 인권학습은 소수를 위한 제한된 교육보다 다수를 위한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변화시킨다. 사람들이 인권도시에 관해 배우고 인권도시의 성공의 증거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와 동일한 가능성을 향유하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도시들과 국가들이 인권도시를 통한 인권중심의 사회적 변화에 지역 수준의 참여를 고무하는 사회적 발전의 가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4장

향후 추진방향

21세기 많은 도시 거주민들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에서 평등’이라는 인권 원칙의 허용 기준보다 낮은 생활여건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무력충돌, 인종학살, 범죄, 부패, 환경파괴, 실업, 성차별, 그리고 폭력으로 고통받는다. 가장 구조적인 결핍은 도시빈민가 거주자들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위생시설의 부족, 수도 시설의 부족, 지속적인 거주 및 생활공간의 부족 등 도시빈민의 네 가지 결핍의 특성 중 한 가지나 그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2005년, 개발도상국 도시 인구의 1/3은 이러한 조건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에 영향받고 있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경우에는 62%에 달했다.⁴⁴⁾ 도시 주민들의 극한 빈곤과 안전 부재는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으며, 이로써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도시빈민 거주자들의 삶에 상당한 개선을 밀레니엄개발목표 중 제11목표로 설정했다. 정부와 개발의 재정 지원을 위한 다자간·쌍방적 원조기구들 그리고 비영리단체와 자선단체들을 포함하는 사적 영역과 함께 UN-HABITAT은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당한 힘과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44)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MDG Indicator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Development Goals Report 2008, New York: United Nations, 2008, p. 43.

이 책은 도시생활의 문제들에서 자원 활용을 감독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고통을 완화시켜 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불의의 본질적인 양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도시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권을 알고 주장하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이는 확실히 사회적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에 기초한 유일한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들에서 인권 의무들을 준수할 수 없게 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약속을 보여 주고 있다. 앞 장에서 제시한 전략은 지역적으로 조직된 인권도시들의 경험에 기초한 인권학습을 통해 시민의 권한 부여를 보여준다.

처음에 서술했듯이, 지역사회 권한 부여에 대한 특정한 전략과 다른 접근법들 간의 차이는 인권학습의 전환적 가능성에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인권학습은 굴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인간 존재에 내재해 있는 이 지식에서 기원한다. 이 전체적인 접근법은 60년 전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선언된 원칙들의 관점을 따르는 동시에, 비판적 교육학의 철학과 방법론들을 결합한다. 사람들이 인간의 고통에 대응하여 권력관계를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역사 전체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재확인한 이 원칙들은 주기적으로 발전되었다. 인권학습과정은 사회적 발전에서 이러한 진보의 기초이다. 인권학습과정은 사회 발전의 도구이다. 이는 인권원칙들을 의식과 도덕적 의사 결정, 입법,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행위 속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인권도시의 창조에 참여했던 이들은 인권 박탈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관계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과 자신감을 획득했다. 그들은 행정·사법 시스템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도시빈곤의 문제를 자선의 수혜자나 잔혹한 운명의 희생자라기보다는 책임감 있는 참여자로 보고 문제들을 다룬다. 그들은 단지 증상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심층적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사회적·경제적 부정의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보는 생각은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적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에 의해서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인권도시가 지역인권활동가들이 지역 당국,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기관들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지역인권활동가들에 의해 촉진되는 자문과정을 거쳐 건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도시는 교육학적 문제들과 방법론적 문제들을 도와주는 국제네트워크의 지원을 받는다. 그들은 함께 지역활동전략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워크숍이나 강사 교육과정을 개최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책자나 시청각 교재 및 다른 매체들을 개발한다. 지역 외부인들은 이런 계획의 어떤 것도 강요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지역사회는 그 지역주민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인권도시가 될 것임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는 여기서 인권학습을 통한 사회발전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 이유는 다부문적 접근(multisector approach)때문이며, 이는 개발 역학과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들과 권력구조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시민의 권한 부여가 이루어지는 도시 공간이 확장되려면 인권도시처럼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방법론으로 훈련받는 과정을 진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각 도시를 운영하는 비용은 그리 많지 않지만, 전략의 규모를 키우고, 지역적·세계적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한 자원배분에 영향을 받는 현존하는 인권도시 거주민들을 고려한다면, 이 전략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이 수천 명에 이르며,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수십만 명에 달한다. 현재 인권도시 프로그램으로부터 직접 혜택을 받는 이들이 얼마로 추산되던지 간에, 이 접근을 일반화한다는 목표를 실현했을 때,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잠재적 참가자에 견주면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할 것이다. 이것은 빈민가에 사는 12억 사람들에게 직접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개발권이 국내정책에서나 국제개발금융에서도 우선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운동은 성장하고 있으며, 파급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성공적인 실행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촉매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현재의 인권도시에 인접한 수많은 도시들이 인권도시가 되고자 요청하는 수많은 사례는 이러한 경향의 증거이다.

시민참여를 통해 부당한 사회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 없이, 현재와 미래의 인권도시의 성공은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적인 기관의 가치와 국내·국제법이 인권개념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시민 권한 부여를 수용하는 국가에서는, 인권도시의 발전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은 이러한 발전을 고무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제3장에서 언급된 예처럼, 실험과 발전의 여지 또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독재주의나 권위주의적 정부가 시민의 권한 부여를 억압하는 곳에서는 인권도시를 시작하거나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인권도시는 변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고, 참여적이고, 배타적이지 않고, 인권에 기반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비폭력운동의 일부이고,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를 움직임으로써 탄생해야 할 것이다. 뿌리 깊은 부패, 성차별적 폭력을 수반한 가부장제, 인사의 편파주의, 무능력, 그리고 차별은 뉴욕, 제네바, 나이로비, 난징에서 채택된 결의안이나 국제금융기구의 용자나 채무조정에서 부여된 조건으로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지역수준에서 사람들이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인권을 회복하고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독재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낸 아르헨티나와 말리 같은 곳에서의 경험은 사회 발전의 도덕적 뼈대로서 지속가능한 인권에 대한 헌신이 새겨져 있다. 다른 사회, 특히 선진국에서는 인권의 급박함이 덜 드러나고 그들의 과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인권도시는 사회가 인권을 실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으며, 그래서 지역 공동체는 항상 깨어있어야 하며, 인권도시의 비전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부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인권학습은 모든 이들이 인권의 멘토가 되고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인권의식을 드높인다.

196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을 때, 발표된 엘리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의 유명한 말이자, 이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연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음의 인용구는 여기서 그리는 전략의 핵심을 잘 설명한다. 아마

도 그녀는 당시에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결국 보편적인 인권이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너무 가깝고 작아서 세계의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을 작은 우리 집에 가까운 곳들에서입니다. 하지만 그곳들도 개인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웃이나, 그가 다니는 학교나 대학이나, 그가 일하는 공장, 농장, 사무실처럼 말입니다. 이런 곳들이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정의와 평등한 기회와 평등한 존엄성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인권이 이런 장소에서 의미가 없다면, 어디에서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까이에서 이런 권리를 지키려는 일치된 시민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더 큰 세상에서 헛되이 길을 찾을 뿐일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 그녀의 나라나 그녀가 익숙했던 공장, 농장, 사무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통찰력은 정확히 로사리오, 캐티, 무샤, 그리고 다른 모든 곳의 인권도시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시민행동”에 대한 그녀의 웅변적인 호소는 여기서 소개된 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이는 가족, 공동체, 기관, 정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로 확장되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제한적이지만 미래를 약속하는 경험은, 인권도시 전략을 고무하고 촉진함으로써, 미래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보여준다.

| 저자소개

스토펜 P. 마크(Stephen P. Marks)는 하버드 공공보건대학원에 보건과 인권 교수(François-Xavier Bagnoud Professor)로 개발과 인권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인문사회대학에서 인권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스탠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와 프랑스의 파리대학교(University of Paris), 스트라스버그대학교(University of Strasbourg), 비산컨대학교(University of Besançon), 니스대학교(University of Nice)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대학교(University of Damascus)에서 학위를 받았다. 또한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와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캄보디아의 프놈펜대학교(University of Phnom Penh) 법과대학, 칼도조 법과대학(Cardozo School of Law), 루저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 법과대학, 홍콩시립대학교의 법과대학 및 홍콩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12년간 유엔의 유네스코 파리지부 및 여러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일했다. 현재 개발권의 이행에 관한 유엔 고등전문위원회(UN High Level Task For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의장을 맡고 있다. 그의 최근 저서는 인간 생식 복제, 보편관할권, 문화적 권리, 인권 교육, 개발권, 인권과 생물학,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PDHRE 이사회 위원이다.

캐슬린 모드로스키(Kathleen Modrowski)는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의 글로벌 대학 세계학 학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녀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수학했으며, 문화인류학과 아랍 민족학 분야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정주화(sedentarization)와 북아프리카와 프랑스간의 순환이민 및 공간의 젠더적 사용(gendered use of space)에 중점을 두고 튀니지와 프랑스에서 현지연구를 했다. 프랑스에 있는 동안 그녀는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화를 공부했고, 과학적 연구를 위한 국립센터(CNRS: the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의 영상과 행동(Geste et Image) 연구팀의 일원으로 일했다. 시각자료조사(visual documentation)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참여적 영화제작 및 사진제작에 관한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공동체들과의 작업으로 이어졌다. 1987년, 그녀는 사회정의에 관한 경험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학술과정인 프렌즈월드(Friends World)대학에서 문화인류학과 비판적 교육학의 교수로 재직했다. 프렌즈월드는 1991년 롱아일랜드대학교와 제휴를 맺었고 후에 글로벌컬리지(Global College)로 명칭을 변경했다. 세계학 학과장으로서, 그녀는 현장 기반의 학습과 공동체 서비스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그녀는 PDHRE 이사회 위원이며 교육 프로그램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연구 분야는 대중적 인권교육과 건강권 및 전통의학, 경험적 교육이다.

국제인권교육시민운동(PDHRE) 소개

술라미스 코니흐(Shulamith Koenig) 창립 회장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인권도시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 및 사람들의 일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권에 대한 필수불가결적인(imperative) 학습을 위한 “주장”으로 발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선에서 존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이 책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감격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마도 인권도시를 여러분의 국가에 시작하길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권도시에 대한 비전과 현실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임무 : PDHRE는 1989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서 경제적·사회적 전환을 위한 인권교육에 깊은 신념을 가지고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PDHRE는 전 세계 60여개 국가의 제휴 및 협력 네트워크와 함께 삶의 방식으로서의 인권교육을 발전 및 증진시키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그들의 삶을 다시 꿈꾸게 하고 그들 공동체의 운명을 정의할 그들 스스로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이 미래설계에 참여하는데, 인권프레임워크는 그들의 희망을 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PDHRE는 인권의 방식을 내면화한 결과로서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공동체의 행동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굴욕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존엄하게 그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인권도시 : 모든 시민들이 평등과 비차별에 근거한 공동체를 만들기로 약속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시민들이 인권프레임워크 대로 그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곳, 사람들이 공포와 빈곤을 극복

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갖는 곳, 인간 안보 및 식량, 깨끗한 물, 주거, 교육, 의료보험, 생활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이러한 자원을 모든 시민들과 공유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실현으로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도시는 그러한 사회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관들이 인류가 직면한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사업에 동시에 일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PDHRE는 시민들이 만약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전체적이고 실제적인 인권프레임워크를 알리고 내재화한다면 사회에 의미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PDHRE는 전 세계에 걸쳐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의 개발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인권도시는 지역조직과 기관들, 그 도시 내의 넓은 범위의 사회경제적 정의 이슈에 대한 참석자들이 그들의 일상에 연관된 인권을 배우는데 동참하는 곳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정하는 결정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며 도시 전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들은 깨끗한 물의 부족, 여성에 대한 폭력, 빈곤, 교육, 식량과 고용과 같은 많은 이슈에 대한 증상과 원인을 조사하는 비판적 사고를 기릅니다. 이것들은 공동체가 인권프레임워크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Human Rights Cities

우리의 웹사이트(<http://www.pdhre.org/>)에서는 비정부기구(NGOs)의 역량을 강화시킬 인권제도를 제공하는 인권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의무를 다룬 ‘정의-자원에 대한 요구’와 ‘공동체 근로자’(<http://www.pdhre.org/justice.html>) 및 ‘여성차별철폐 협약에 관한 비디오와 매뉴얼’ (<http://www.pdhre.org/videoseries.html>), 그 외 다양한 학습 도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교육시민운동(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Learning)

526 웨스트 111번가, 4E구획,

뉴욕, 뉴욕 주 10025, 미국

(526 West 111th St. Suite 4E,

New York, NY 10025, USA)

전 화 : 1-212-749-3156

팩 스 : 1-212-666-6325

이 메 일 : pdhre@igc.org

웹사이트 : www.pdhre.org

Human Rights Cities



국가인권위원회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로6 금세기빌딩 10층 인권교육과
전화 : 02)2125-9700 FAX : 02)2125-9878
www.humanrights.go.kr